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2023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2023



전환의 시대,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 전환의 시대,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2023

전환의 시대,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

# 경희대학교

## 미래리포트 2023

### 1부 전환의 시대,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왜 다시 '미래리포트'인가	6
누가, 어떻게 참여했나: 추진 경과 및 조사 방법	8

### 2부 오늘을 성찰하고, 미래를 상상하다

<b>'나'의 현재와 미래</b>	13
가장 소중한 가치, '행복'   '주변 사람들'이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   팬데믹 기간, "미디어 이용 시간 늘었다"   미래는 '경제력'과 '건강'이 결정	
<b>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b>	23
68.2%, 통일 '불가능하다'   한국 인구 '더 줄어든다'   50년 후, 1인 가구는 약 40%, 평균수명은 93세   지금보다 '덜 행복한' 미래의 대한민국   '출산율 저하',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극복해야   코로나19로 경험한 한국 사회 강점은 '정부 지침 준수', 약점은 '개인주의'	
<b>인류의 현재와 미래</b>	39
기후 위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   50년 후에도 자본주의는 굳건할 것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 건설 '어렵다'   시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은 '감정'   전 지구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존경받을 것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미래	

---

---

## 대학과 고등교육

55

대학 교육을 받는 이유, '취업' | 대학, 더 나은 세계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인생포트폴 리오'로 학생 선발해야 | 미래 대학은 '현재와 같을 것' | 미래 대학의 존경받는 교수는 '뛰어난 질문자' | '비대면 수업',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 | 챗GPT,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 경희의 현재와 미래

73

63.5%, 구성원으로서 자부심 느낀다 | 강점은 '교양교육', 약점은 '동문의 사회진출' | 미래 경쟁력 분야 3위는 '응용과학' | 50년 후, '창의적 문제해결력'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 미래 경희의 핵심 가치는 '사고력 확장' | 경희대, 세계시민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 코로나19 대응, '빠른 비대면화' 우수, '등록금 대처' 미흡 | 경희대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은 '소통 능력' | 전환의 시대, '재정확보 및 경영' 능력 갖춘 총장 기대 | 경희 리더 그룹에게 중요한 가치는 '인문성을 갖춘 지성인 양성' | 50년 후 경희대는 세계 118위, '노벨평화상' 기대 | 경희대학교 후배들이여, '화이팅!' '자부심'을 갖고 '전진하라'

## 3부 전환의 시대,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역할

### 대학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뀐다

105

부록1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2023 정량 조사 설문지

112

부록2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2023 정성 조사 설문지

120

---

---

1부 전환의 시대,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 전환의 시대,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문명 전환기, 대학이 지향해야 할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전 세계를 유례없는 위기로 몰아넣은 코로나19(COVID19)는 인류문명을 급속도로 바꿔 놓았다. 대학과 그 구성원의 사고와 생활 양식 또한 급변했다. 지성 공동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는 다시 한번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대학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더 나은 대학 건설을 위한 핵심 요건을 모색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를 추진했다.

경희대학교는 이미 2014년 개교 65주년, '경희 100년 미래메시지' 50주년을 맞아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이하 미래리포트 2015)를 추진한 바 있다. '경희 100년 미래메시지'는 경희가 1964년 개교 15주년을 기념해 당시 구성원의 뜻을 모아 작성해 후학에게 남긴 것으로, 메시지의 골자는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적인 명문으로 성장하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뒤, 초창기 경희의 염원을 다시 현재화, 미래화한 것이 '미래리포트 2015'이다.

'미래리포트 2015'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10개월에 걸쳐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발간됐다. 5개 주제 65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사회진출, 대학행정 등의 혁신을 촉구했다. 대학 혁신은 교육 혁신에서 시작한다는 것, 종합적인 사회진출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재정의 혁신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등의 함의를 얻었다.

### 뉴 노멀 시대, 교육의 미래를 묻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인 지금, 다시 한번 경희의 역사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경희의 미래 비전을 대내외로 확산, 공유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2023'을 추진했다. 문명사적 격변은 이미 시작됐다. 현재 인류는 기후 위기, 생태·환경 붕괴, 불평등과 양극

---

화, 신종 감염병 등 지구적 난제와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앞당긴 뉴 노멀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묻는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챗GPT’는 대학의 존재 이유와 교육의 미래에 관해 묻는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있다.

#### 경희 구성원이 함께 더 나은 미래 모색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미래리포트는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등 다양한 조사 방식을 통해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국내외 대학 및 경희의 현주소와 지향점, 나아가 한국 사회와 인류문명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고민했다.

미래리포트는 학생, 교수, 직원 등 전 구성원이 함께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희 구성원은 미래리포트에 참여하며 미래 대학이 존재해야 하는 근본 이유에서부터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인류사회가 추구해야 할 보편가치를 지구적 맥락에서 재정의해보았다. 집단지성이 집단실천으로 이어질 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경희의 미래 구상은 대학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될 것이다.

꿈은 함께 꿀 때 더 크게, 더 빨리 이뤄진다. 나를 넘어서는 나, 경희를 넘어서는 경희, 대학을 넘어서는 대학, 문명을 넘어서는 문명이 우리 앞에 있다. ‘미래리포트 2023’을 통한 우리의 성찰과 상상은 경희의 도약 발전은 물론 국내외 대학, 나아가 지속가능한 인류문명을 꿈꾸는 시민과 단체, 공공기관에도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량 조사: 약 2주간 전체 구성원 중 5,264명 설문조사 참여

정량 조사는 2023년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등 경희대학교 구성원 중 총 5,264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이 중 부실한 응답을 제외한 5,222건이 분석에 활용됐다. 응답률은 13.9%에 이른다.

설문 문항은 2015년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구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 전환기 리더십을 전망하는 문항을 추가·보완했다.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성 조사 참여 동의 여부를 조사해, 참여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들을 심층 대화 참여 대상자군으로 삼았다.

- **조사 기간:** 2023년 5월 17일(수) ~ 2023년 5월 30일(화)
- **조사 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등 경희대학교 구성원 중 총 5,264명
-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시행(응답시간 약 30분)
- **설문 문항:** 나, 한국 사회, 인류, 대학교 고등교육, 경희 등 5개 주제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총 73문항 제시
- **조사 진행:** 총 5,264부 회수

### 경희미래리포트 조사 참여 인원

	조사 대상	설문조사 참여	정성 조사 동의	정성 조사 참여자 선정
학부생	서울	1,717	572	11
	국제	1,477	480	10
	소계	3,194	1,052	21
	대학원생	1,426	477	9
	교수	361	82	10
	직원	283	90	10
	조사 참여자 합계	5,264	1,701	50

## 정성 조사: 학생 4그룹 및 교직원 2그룹 FGI, 교수 10명 IDI 등 총 50명 심층 면접조사

정성 조사는 주요 문항 답변에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답변 이유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행했다. 앞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정성 조사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 중 계열, 성별, 학년, 연차, 직급 등을 고려해 총 50명이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3년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정성 조사는 총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30명과 교직원 10명은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집단 심층 대화를 나누었고, 교수 10명은 화상 또는 개별 IDI(In-Depth Interview)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 조사 기간: 2023년 6월 13일(화) ~ 2023년 6월 21일(수)

- 조사 대상

총 50명(학부생 및 대학원생 30명, 교직원 10명, 교수 10명)

정량 조사 시 '정성 조사 참여 동의'한 응답자 중 캠퍼스, 계열, 직급을 고려해 선정

- 조사 방법

학부생, 대학원생: FGI(Focus Group Interview) 총 5그룹(서울 2그룹, 국제 3그룹)

교직원: FGI(Focus Group Interview) 총 2그룹(서울 1그룹, 국제 1그룹)

교수: IDI(In-Depth Interview) 대면/화상 개별 심층 대화

### 경희미래리포트 정성 조사 진행

그룹	조사 대상	진행일시	장소	인원(명)
1	학부생 및 대학원생	6월 13일(화) 오후 2시~4시	서울 생활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센터 편집실	서울 8
2		6월 13일(화) 오후 5시~7시	서울 생활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센터 편집실	서울 7
3		6월 14일(수) 오후 2~4시	국제 중앙도서관 대회의실	국제 5
4		6월 14일(수) 오후 5시~7시	국제 중앙도서관 대회의실	국제 8
4보충		6월 20일(화) 6시, 21일(수) 2시	온라인 면담	국제 2
5	교직원	6월 19일(월) 오후 2시~	서울 생활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센터 편집실	서울 5
6		6월 20일(화) 오후 2시~	국제 멀티미디어관 테크노경영대학원 회의실	국제 5
7	교수	6월 19일(월) ~ 21일(수)	개별 진행 (개별연구실 혹은 화상미팅)	서울 6 (의학1, 한의학1 포함) 국제 4
참여 인원 합계				50 (서울 26/국제 24)

---

2부 오늘을 성찰하고,  
미래를 상상하다





# ‘나’의 현재와 미래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나’와 세계의 관계를 재정의하면서 ‘나’를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게 한다. <나’의 현재와 미래>는 지금, 여기의 ‘나’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50년 후의 삶을 상상해 보는 설문으로 구성됐다. 경희 구성원은 가장 소중한 가치로 ‘행복’을 꼽았으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소중한 가치, ‘행복’

경희 구성원은 2023년 현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행복’을 꼽았다. 50년 후 자신에게 소중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로는 ‘건강’을 택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스스로 묻는 일은 자기 삶의 현 좌표를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 ‘건강’, 7위에서 2위로 순위 상승

현재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지 묻자 62.2%(3,247명)가 ‘행복’을 선택했다. 이어 ‘건강’(47.3%, 2,468명), ‘경제력’(42.5%, 2,220명), ‘자아실현’(32.5%, 1,697명), ‘사랑’(26.2%, 1,367명) 등이 2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했다. ‘인성’(8.1%, 424명)이나 ‘공동체’(6.1%, 320명)를 선택한 사람이 ‘경제력’ 같은 현실적인 가치를 선택한 사람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50년 후 가장 소중한 가치는 ‘건강’이 압도적으로 많이 집계됐다(72.9%, 3,807명). 이어 ‘행복’(54.8%, 2,864명), ‘경제력’(43.9%, 2,290명), ‘여유’(32.8%, 1,715명), ‘사랑’(27.2%, 1,418명)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미래에는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원하는 모습이다.

### ‘건강’, ‘경제력’ 응답 비율 늘어

2015년 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이다. 2015년 조사에서 경희 구성원은 현재 소중한 가치로 ‘행복’(39.5%, 3,918명), ‘자아실현’(12.8%, 1,273명), ‘사랑’(8.7%, 866명)을 선택했다. ‘자아실현’의 비중은 작아지고 ‘경제력’의 비중은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50년 후 소중한 가치를 묻는 질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2015년 조사에서 50년 후 가장 소중한 가치로 ‘행복’(37.4%, 3,712명), ‘건강’(19.1%, 1,890명), ‘여유’(9.4%, 930명)가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행복’이라는 답변이 ‘건강’이라는 답변보다 약 2배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건강’이 ‘행복’을 훨씬 상회했다. 8년 사이에 ‘건강’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것이다. 2015년 당시 ‘경제력’(4.2%, 414명)은 5위를 기록하며 ‘여유’나 ‘사랑’(7.8%, 772명)보다 낮은 순위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경제력’이 ‘여유’와 ‘사랑’을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 “‘돈’이 가장 중요하다”

FGI에서 학생G2 C는 “행복한 대로 하는 게 좋다”라며 행복이 현재 가장 중요한 가치라 언급했다. 이 외에도 “돈이 있어야 사람이 여유로워진다고 생각하기에 수단이 될지언정 돈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학생G1 B)한다거나 “돈이 있으면 실버타운에도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선택할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학생G2 E)한다며 경제력을 최고의 가치로 꼽은 주장이 많았다. 교수 답변 가운데는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교수A)라거나 “커리어에서의 발전”(교수)처럼 교육자, 연구자로서의 고민이 담긴 답변이 많았다.

**Q. 2023년 현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현재 소중한 가치	2023		2015	
	빈도	%	빈도	%
행복	3,247	62.2	3,918	39.5
건강	2,468	47.3	408	4.1
경제력	2,220	42.5	500	5.0
자아실현	1,697	32.5	1,273	12.8
사랑	1,367	26.2	866	8.7
여유	1,260	24.1	645	6.5
자유	1,038	19.9	446	4.5
인성	424	8.1	184	1.9
공동체	320	6.1	118	1.2
안전	298	5.7	41	0.4
정의	293	5.6	209	2.1
생명	277	5.3	75	0.8
평등	181	3.5	26	0.3
공감	168	3.2	112	1.1
기타	60	1.1	1,091	11.0
총계	15,318		9,912	

\*2015년 설문조사는 단일 응답으로 진행

**Q. 50년 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50년 후 소중한 가치	2023		2015	
	빈도	%	빈도	%
행복	2,864	54.8	3,712	37.4
건강	3,807	72.9	1,890	19.1
경제력	2,290	43.9	414	4.2
자아실현	694	13.3	388	3.9
사랑	1,418	27.2	772	7.8
여유	1,715	32.8	930	9.4
자유	517	9.9	135	1.4
인성	177	3.4	98	1.0
공동체	367	7.0	155	1.6
안전	495	9.5	55	0.6
정의	137	2.6	128	1.3
생명	558	10.7	157	1.6
평등	99	1.9	17	0.2
공감	117	2.2	97	1.0
기타	43	0.8	964	9.6
총계	15,398		9,912	

\*2015년 설문조사는 단일 응답으로 진행



## ‘주변 사람들’이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50년 후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갖춰 나가야 할 능력은 무엇인지 조사했다. 2015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라고 답한 구성원이 월등히 많았다.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결핍’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 학생·직원 반응 엇갈린 ‘책’과 ‘종교’

현재 나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묻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변 사람들’(55.3%, 2,886명)을 꼽았다. 이어 ‘미디어’(13.4%, 701명), ‘학교 교육’(8.3%, 432명), ‘여가생활’(8.2%, 426명), ‘책’(6.4%, 334명) 순으로 뒤따랐다.

다른 항목들의 응답 비율은 유사했으나, ‘책’과 ‘종교’에서 학생과 직원의 응답 비율이 분명하게 나뉘었다. ‘책’의 경우 학생은 5.6%(258명)가 선택한 반면 직원은 12.0%(76명)가 선택했으며, ‘종교’의 경우 학생은 5.1%(236명)가 선택한 반면 직원은 12.1%(77명)가 선택해 두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책’과 ‘종교’가 기성세대에게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MZ 세대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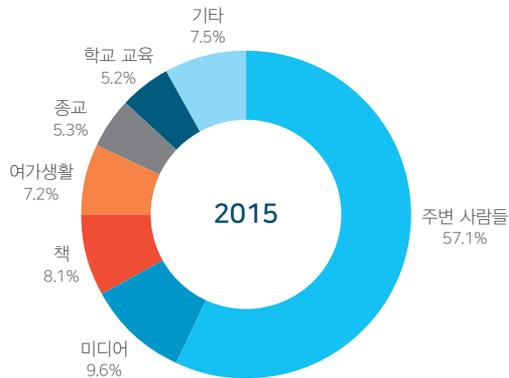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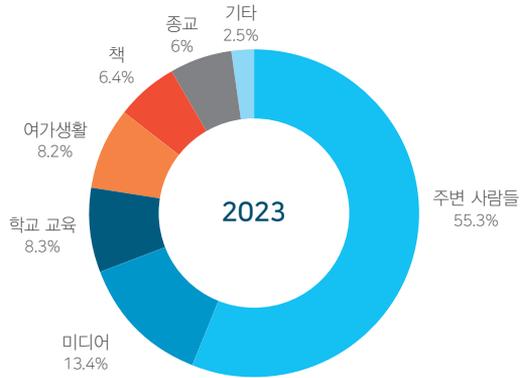
### 미디어의 영향력 크게 늘었다

2015년 조사와 2023년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특히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주변 사람들’(2015년, 57.1%)의 영향력을 꼽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9.6%에서 13.4%로 눈에 띄게 상승했는데, 이것은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미디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삶을 묻는 질문에 ‘미디어 사용이 늘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는 것과 연결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 교육’의 경우 순위가 6위에서 3위로 높아졌지만, 응답 비율은 2015년 5.2%에서 2023년 8.3%로 약 3%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현재 대학 교육을 받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9.8%만이 ‘가치관 형성’이라 답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여전히 학교 교육이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Q. 현재 나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현재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23		2015	
	빈도	%	빈도	%
주변 사람들	2,886	55.3	5,664	57.1
미디어	701	13.4	948	9.6
학교 교육	432	8.3	513	5.2
여가생활	426	8.2	715	7.2
책	334	6.4	798	8.1
종교	313	6.0	529	5.3
기타	130	2.5	745	7.5
총계	5,092	100	9,167	100



## 팬데믹 기간, “미디어 이용 시간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경희 구성원의 삶과 의식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팬데믹 동안의 삶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한 답은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었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제한된 빈틈을 ‘미디어’가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 직접적인 소통 대신 ‘미디어’에 의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7점 평균으로 나타냈을 때 5.78점을 기록했다. ‘인터넷 쇼핑/배달 음식 주문이 늘었다’(5.37점), ‘원격수업/원격회의를 선호하게 되었다’(5.06점), ‘무엇이든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해졌다’(5.03점)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반면 가장 적은 수의 응답자가 선택한 항목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3.20점), ‘새로운 사람/공동체와 관계를 확장했다’(3.29점), ‘팬데믹 이전보다 더 행복했다’(3.53점), 친구/선후배와 관계가 좋아졌다’(3.57점) 등이었다.

응답 내용을 요약하면 사람들의 직접적인 소통이 제한되었던 팬데믹 기간에 경희 구성원은 ‘미디어’에 크게 의존해 생활하며 인터넷 쇼핑, 배달 음식, 원격수업과 원격회의 등 ‘비대면’ 방식에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인간관계의 제한은 결국 낮은 사람이나 공동체와의 관계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혼자 생활하는 데 익숙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 ‘관계 맺기 능력’ 길러주는 교육 필요

현재 재학생의 절반가량은 코로나19로 인해 고등학교 과정 일부와 대학 신입생 시절을 비대면 방식으로 경험한 이른바 ‘코로나 세대’이다. 신입생, 재학생 관계없이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 학창 시절을 비대면 방식으로 지나왔다. 이는 대학 분위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선후배 간 관계 맺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직접적인 만남보다는 문자, 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한 만남을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디지털 문명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소통 방식이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삶의 모든 부분이 ‘비대면’ 방식으로 유지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고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의 상당수가 같은 학과 동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밥은 누구와 먹어야 하는지 같은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대학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마냥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대학 교육은 경쟁 위주의 평가, 지식 전달 중심으로 강의보다는 대화와 토론, 그리고 협업을 통한 성취 같은 관계 맺기의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Q.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순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나의 삶	7점 평균(점)
1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었다	5.78
2	인터넷 쇼핑/배달 음식 주문이 늘었다	5.37
3	원격수업/원격회의를 선호하게 되었다	5.06
4	무엇이든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5.03
5	전반적으로 일상이 달라졌다	4.93
6	건강/위생 관련 지출이 늘었다	4.85
7	자기계발/여가시간이 늘었다	4.78
8	가족과 관계가 좋아졌다	4.45
9	팬데믹 이전보다 더 우울했다	4.10
10	학업에 몰두하는 시간이 늘었다	4.05
11	팬데믹을 계기로 나의 미래가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 믿었다	3.67
12	친구/선후배와 관계가 좋아졌다	3.57
13	팬데믹 이전보다 더 행복했다	3.53
14	새로운 사람/공동체와 관계를 확장했다	3.29
15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3.20

## 미래는 ‘경제력’과 ‘건강’이 결정

50년 후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미래가 실현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는지 조사했다. 미래를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력’과 ‘건강’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미래가 실현될 가능성은 67.3%로 나타났다.

### 각자도생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 드러나

‘경제력’은 35.3%(1,842명)가, ‘건강’은 29.1%(1,522명)가 50년 후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다른 문항의 답변에서도 ‘건강’과 ‘경제력’이 상당히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처럼 응답자의 대부분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자신의 미래가 타인과의 관계나 국가, 공동체 등의 영향력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각자도생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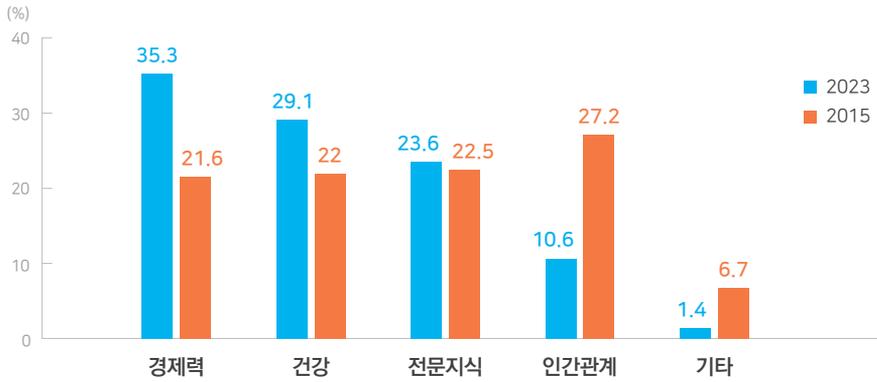
2015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특징은 한층 분명해진다. 2015년 조사 당시 같은 질문에 ‘인간관계’라 응답한 비율이 2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지식’(22.5%), ‘건강’(22.0%), ‘경제력’(21.6%) 등의 순서였다. 이번 조사에서 ‘인간관계’는 10.6%(553명)로 4위에 오른 반면, 2015년 4위를 기록했던 ‘경제력’이 이번 조사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전문지식’의 비율이 낮아지고 ‘건강’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세대별로 다른 미래 전망, 학생들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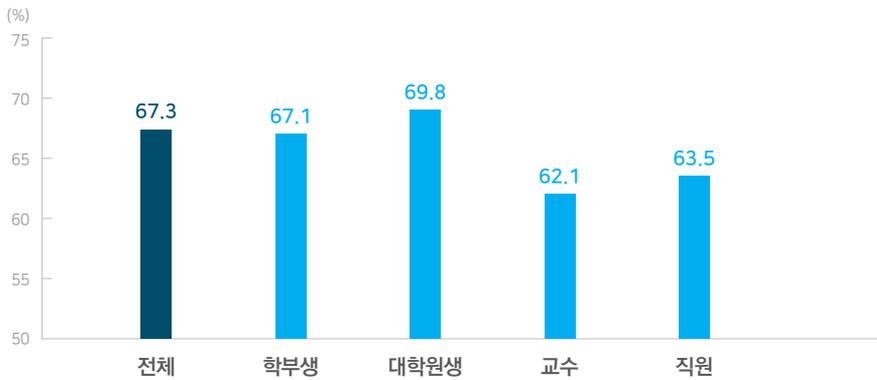
경희 구성원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50년 후 현재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가 실현될 확률은 몇 %라고 보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경희 구성원은 67.3% 정도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실현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것은 경희 구성원이 미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각각 69.8%, 67.1%로 교수(62.1%)와 직원(63.5%)에 비해 높았다. 미래 세대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FGI에 참여자들 또한 대체로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 학생 그룹의 FGI에서는 참여자 일곱 명 가운데 여섯 명이 50년 후 자신의 꿈이 실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한 학생(학생G1 D)도 꿈의 실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 학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50년 후 나의 꿈이 실현될지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직원 그룹의 FGI에서는 참여자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이 50년 후 자신의 꿈이 실현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Q. 50년 후 나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Q. 50년 후 현재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가 실현될 확률은 몇 %라고 보는가?





#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

사회적 존재로서 '나'의 일상과 직결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았다.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예상과 더불어 가족 형태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느낀 한국 사회에 대한 구성원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며 50년 뒤를 상상했다.

## 68.2%, 통일 ‘불가능하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통일 문제는 더욱 그렇다. 남북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50년 안에 남북통일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31.8%(1,658명),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68.2%(3,564명)로 부정적인 응답이 월등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2015년에 비해 통일 가능성 낮게 예측

경희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향후 50년 이내에 통일이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이번 설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답변이 직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학생의 답변은 29.5%(1,352명)인 데 반해, 교수와 직원은 48.3%(306명)에 달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2015년 조사에서 구성원의 절반 이상인 50.7%가 5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통일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비율이 51 대 49에서 32 대 68로 바뀐 것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징후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영향이 학생에게 집중된 이유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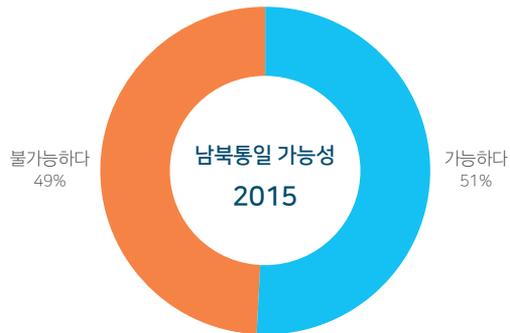
### “통일은 한국 발전에 도움 되지 않아”

FGI에서 학생들은 대체로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저출산, 취업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간혹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도 “북한하고 통일은 안 될 것 같다”(학생G2 C)라거나 현재의 휴전(정전) 상태가 ‘중전’ 상태로 바뀌어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살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남북통일이 됐으면 좋겠다”(학생G1 G)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다.

기성세대는 남북통일을 당위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학생들은 통일이 한국에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아닌 한, 대체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직원C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별로 남북통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고, 직원A는 이러한 무관심이 “기회 요인이 별로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태도는 최근 남북 관계가 군사적 대립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남북 간의 이러한 대립이 궁극적으로는 한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Q. 앞으로 50년 안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50년 안에 남북통일 이루어질까	2023				2015	
	전체		학생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가능하다	1,658	31.8	1,352	29.5	5,055	50.7
불가능하다	3,564	68.2	3,236	70.5	4,857	49.3
총계	5,222	100	4,588	100	9,912	100



## 한국 인구 '더 줄어든다'

50년 후 국민총생산과 인구, 외국인 거주 비율은 어떻게 변할까. 경희 구성원은 전문가들의 예측과 유사하게 인구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총생산의 세계 순위도 일정 정도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거주 비율은 완만하게 증가한다.

### 50년 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 세계 26위로 예측

50년 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 인구,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을 예측해 한국 사회의 미래 모습을 전망했다. 50년 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세계 몇 위일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총 5,222명의 응답을 종합한 결과, 약 26위로 나타났다. 2023년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 세계 30위인 것을 고려할 때 응답자들은 순위가 약 4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교수가 약 21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예상한 반면 학부생은 약 27위로 예측해 이 문제에 대해 교수와 학부생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 현재 한국의 인구보다 약 876만 명 줄어든 것

2006년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한국은 합계출산율 0.78로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되었다. 실제로 한국의 인구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50년 후 한국의 인구가 몇 명일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약 4,264만 명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한국의 인구 약 5,140만 명보다 약 876만 명이 적은 수치이다.

한편 50년 후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은 약 13.2%로 예상됐다. 이는 응답자 5,222명의 답변의 평균을 산출한 것으로 2023년 현재 225만 명(약 4.4%)보다 9% 늘어난 수치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23년 현재 약 225만 명에 달한다.

### 인구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중

국민총생산과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의 경우는 2015년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으나 인구수에 있어서는 다소 큰 차이를 보인다. 2015년 조사에서 경희 구성원은 한국의 인구가 약 6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약 876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수치는 2070년에 한국의 인구가 약 3,8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통계청의 자료보다는 약 400만 명 많은 숫자이다. 경희 구성원은 한국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 감소 폭에 있어서는 현실과 약간 다른 감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Q.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세계 30위(약 3만 3천 달러)이다.  
50년 후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전 세계 몇 위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2023

전체 **26.15** 위

교수 **21.47** 위

학생 **26.53** 위

직원 **24.95** 위

2015

전체 **24.1** 위

Q. 현재 한국의 인구는 약 5,140만 명이다.  
50년 후 한국의 인구는 대략 몇 명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2023

전체 **4,264** 만명

교수 **3,953** 만명

학생 **4,280** 만명

직원 **4,907** 만명

2015

전체 **5514.3** 만명

Q.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등록자 수는 약 2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이다.  
50년 후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은 몇 %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2023

전체 **13.2** %

교수 **15.4** %

학생 **13.0** %

직원 **13.4** %

2015

전체 **11** %

## 50년 후, 1인 가구는 약 40%, 평균수명은 93세

50년 후 평균수명은 어떻게 변화할까. 1인 가구의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까. 경희 구성원에게 50년 후 평균수명과 1인 가구 비율을 물었다. 경희 구성원은 50년 후 한국인의 평균수명을 93세로 예상했다. 2015년 조사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약 42%를 차지할 것으로 보았다. 혼인율 감소 등 다양한 사회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 구성원 답변 일치, '1인 가구 증가 충분히 체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인 가구 수는 전체의 34.5%에 이른다. 1인 가구의 증가는 혼인율 감소, 초혼 연령의 상향에 따른 미혼·독식 가구의 증가,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2000년 이후 1인 가구가 급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4인 가구의 비율이 31.1%에서 13.8%로 급감한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요인에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 50년 후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몇 퍼센트일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경희 구성원은 약 42.1%라 답했다. 다른 문항과 달리 구성원별로 답변이 거의 비슷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각각 41.8%와 42.4%라 답했고, 교수는 42.0%, 직원은 43.1%라 답했다. 경희 구성원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2015년 동일한 질문에 대해 경희 구성원은 33.9%라고 답변했다. 당시 조사에서도 거의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 기대수명, 8년 전과 큰 차이 없어

50년 후 한국인의 평균수명을 예상해 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93세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 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을 기반으로 분석한 한국인의 기대수명인 83.6년보다 9.4세 늘어난 수치이다.

경희 구성원은 2015년 조사에서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95.9세라고 답변했다. 이것은 기대수명에 대한 인식에서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기대수명은 보건의료, 돌봄, 경제적 수입, 건강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미래 전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따라서 예측된 기대수명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항목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Q.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1990년 10%에서 2010년 20%, 현재는 29.8%로 증가했다. 50년 후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몇 %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2023

전체 **42.1%**

교수 **42.0%**

학생 **42.0%**

직원 **43.1%**

---

2015

전체 **33.9%**

---

Q.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5세(여자 86.4세, 남자 80.5세)이다. 50년 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몇 세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2023

전체 **93.3**세

교수 **91.8**세

학생 **93.5**세

직원 **92.9**세

---

2015

전체 **95.9**세

## 지금보다 ‘덜 행복한’ 미래의 대한민국

행복은 어느 시대에도 인간 삶의 중요한 가치였다. 근대 사회가 탄생한 이후 인류는 행복을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추구권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명문화하고 있다. 2022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조사 대상 146개국 가운데 59위였다. 그렇다면 경희 구성원은 50년 후 한국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예상할까? 경희 구성원은 대답은 약 63위였다.

### 학생들, 행복지수 가장 낮게 예상

이 질문에 대해 경희 구성원의 답변은 대체로 유사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각각 65위와 61위라고 대답했고, 교수와 직원은 각각 53위와 59위라고 대답했다. 교수와 학부생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교수가 50년 후의 미래를 지금과 비슷한 상황으로 예상한다면 학부생은 행복지수가 지금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가 실현될 확률을 조금 더 높게 예측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 50년 후 노동시간은 약 45.4시간, 8년 전과 큰 차이 없어

주당 평균 노동시간과 재택근무 비율은 노동시간과 노동방식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경희 구성원 모두의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다. 경희 구성원은 미래의 노동방식과 형태에 대해 어떻게 예상할까? 50년 후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몇 시간일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경희 구성원은 약 45.4시간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현재의 52시간에 비해 약 7시간 정도 줄어든 수치이다. 전체 응답자 그룹 가운데 학부생의 답변(46.7시간)이 나머지 그룹에 비해 조금 높았으나 주당 40시간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노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2015년 조사 때의 대답(44.0시간)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 코로나19 영향, 재택근무 보편화될 것

미래의 노동은 근무 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대면 방식, 재택근무 방식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노동방식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50년 후 한국의 재택근무 비율은 몇 %일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경희 구성원은 41.7%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2015년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27.8%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이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비대면 방식과 재택방식 등이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었으나 향후 이러한 노동방식이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 발전은 가능, 행복은 '글썸'

FGI 참여자들은 50년 후 한국 사회가 현재와 비슷하거나 지금보다 덜 행복한 사회일 것으로 예상했다. 직원C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행복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했고, 직원H는 미래의 한국 사회는 “어떤 분야에서의 성공과 그 분야에서만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뿐 사회 전체가 행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교수G 또한 “IT 기술 등이 발전함으로써 더 편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한다면 그것이 곧 ‘행복’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경희 구성원은 대체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이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 2022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146개국 중 59위였다. 50년 후 한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몇 위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전체 **63**위      학생 **64**위      교수 **53**위      직원 **59**위

Q. 현재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2시간 정도이다. 50년 후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몇 시간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2023		2015			
전체	<b>45.4</b> 시간	교수	<b>42.2</b> 시간	전체	<b>44.0</b> 시간
학생	<b>45.8</b> 시간	직원	<b>42.2</b> 시간		

Q. 50년 후 한국의 재택근무 비율은 몇 %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2023		2015			
전체	<b>41.7</b> %	교수	<b>40.3</b> %	전체	<b>27.8</b> %
학생	<b>41.9</b> %	직원	<b>40.6</b> %		

## ‘출산을 저하’,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경희 구성원의 상당수가 ‘출산을 저하’를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학생과 직원의 인식차가 드러났다.

### 58.6%, ‘출산을 저하’ 심각하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8.6%(3,061명)가 ‘출산을 저하’를 꼽았다. 다음으로 ‘고령화’(29.9%, 1,559명), ‘젠더 갈등’(26.3%, 1,375명), ‘빈부격차’(21.9%, 1,142명) 등의 순서였다. ‘환경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10.8%(563명)에 불과했다. 이는 질문의 범위를 한국 사회로 한정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추측된다.

‘출산을 저하’와 ‘고령화’ 이외의 답변에서는 구성원 간의 인식차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 학생의 경우 ‘젠더 갈등’(28.7%, 1,315명)을 심각한 문제라 답한 비율이 ‘빈부격차’(21.9%, 1,004명)나 ‘이념 갈등’(11.9%, 547명)을 훌쩍 뛰어넘었고, 직원의 경우 ‘이념 갈등’(21.9%, 139명)과 ‘빈부격차’(21.8%, 138명)가 심각한 문제라 답한 비율이 ‘젠더 갈등’(9.5%, 60명)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

### 교육 현장에서 ‘젠더 갈등’ 해결책 모색해야

2015년 조사와 비교하면 지난 10년간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적해 볼 수 있다. 2015년 동일한 질문에 대해 경희 구성원의 34.5%(3,419명)가 ‘빈부격차’를 가장 중요한 갈등 요소로 꼽았다. 당시 조사에서 ‘출산을 저하’는 12.0%(1,191명)로 3위였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빈부격차’가 4위에 그쳤다. ‘출산을 저하’ 문제가 경희 구성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학생들이 ‘젠더 갈등’ 문제를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문제 중 하나로 꼽았다는 점이다. 2015년 조사 당시 ‘젠더 갈등’이 보기에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학생의 응답에서 ‘젠더 갈등’이 ‘이념 갈등’이나 ‘빈부격차’에 비해 훨씬 높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교육 현장에서 ‘젠더 갈등’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해 보인다.

### “저출산 문제,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연결될 것”

FGI에 참여한 학생G1 B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젠더 이슈나 세대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대학에 들어오고 심각해졌다”라면서 이러한 갈등의 해소 없이는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학생G3 B는 “가장 코앞에 닥친 문제는 일단 저출산 문제”이고 그것이 “노인들의 비율이 너무 높은 한국 사회”가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원 역시 해마다 입시준비생이 줄어드는 현실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결국 저출산 문제가 “연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Q.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2023		2015	
	빈도	%	빈도	%
출산율 저하	3,061	58.6	1,191	12.0
고령화	1,559	29.9	724	7.3
젠더 갈등	1,375	26.3	-	-
빈부격차	1,142	21.9	3,419	34.5
이념 갈등	686	13.1	-	-
세대 갈등	650	12.4	442	4.5
환경문제	563	10.8	165	1.7
민주주의 위기	353	6.8	1,403	14.2
에너지 자원 부족	193	3.7	169	1.7
남북 갈등	161	3.1	528	5.3
지역 갈등	103	2.0	355	3.6
핵 문제	74	1.4	69	0.7
인종 갈등	51	1.0	24	0.2
종교 갈등	35	0.7	27	0.3
식량부족	29	0.6	18	0.2
기타	107	2.0	1,378	13.9
총계	10,035		9,912	

\*2015년 설문조사는 단일 응답으로 진행



##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극복해야

50년 후에도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를 한국 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인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 50년 후 가장 큰 문제 3위는 ‘환경문제’

‘50년 후 한국 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출산율 저하’라는 응답이 46.5%(2,42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령화’는 44.9%(2,345명)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환경문제’(27.5%, 1,434명)와 ‘빈부격차’(18.2%, 951명)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출산율 저하가 고령화로 연결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015년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고령화’가 21.8%(2,157명)로 가장 높았고 ‘빈부격차’가 19.2%(1,900명), ‘출산율 저하’가 13.4%(1,331명)로 그 뒤를 이었다. 요약하면 ‘고령화-빈부격차-출산율 저하’의 순서가 ‘출산율 저하-고령화-환경문제’의 순서로 바뀐 셈이다.

### ‘환경문제’ 중요성 알리는 노력 필요

2015년 조사에서는 ‘환경문제’라고 답한 비율이 8.1%(801명)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7.5%가 ‘환경문제’를 50년 후 한국 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순위상으로는 ‘환경문제’가 3위를 기록했으나 응답 비율이 약 20% 포인트 가까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다. 경희 구성원의 상당수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환경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로 선택되지는 않았다. 경희 구성원은 ‘환경문제’가 당면 문제가 아니라 50년 이후, 즉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Q. 50년 후 한국 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예상하는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50년 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2023		2015	
	빈도	%	빈도	%
출산율 저하	2,427	46.5	1,331	13.4
고령화	2,345	44.9	2,157	21.8
환경문제	1,434	27.5	801	8.1
빈부격차	951	18.2	1,900	19.2
에너지 자원 부족	683	13.1	864	8.7
세대 갈등	516	9.9	358	3.6
식량부족	279	5.3	296	3.0
이념 갈등	276	5.3	-	-
인종 갈등	274	5.2	184	1.9
젠더 갈등	241	4.6	-	-
민주주의 위기	178	3.4	396	4.0
남북 갈등	154	2.9	329	3.3
핵 문제	122	2.3	102	1.0
지역 갈등	71	1.4	182	1.8
종교 갈등	62	1.2	68	0.7
기타	42	0.8	944	9.5
총계	10,013		9,912	

\*2015년 설문조사는 단일 응답으로 진행



## 코로나19로 경험한 한국 사회 강점은 ‘정부 지침 준수’, 약점은 ‘개인주의’

코로나 19 팬데믹은 한국 사회가 겪어본 적 없는 사회적 재난이었다. 근대 이후 우리 사회는 접촉, 연결, 고밀도를 동력으로 삼아 압축 성장을 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연결이 특정한 조건에서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임을 일깨워 주었고, 인간과 비(非)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 마스크는 잘 썼지만, 사회적 약자 돌보지 못해

이번 조사의 핵심적인 부분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희 구성원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느낀 우리 사회의 강점이자 자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정부지침준수’(369회)와 ‘마스크’(268회)였다. ‘대처/대응’(189회), ‘비대면’(171회), ‘빠르다’(131회), ‘방역’(128회), ‘온라인’(118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희 구성원은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 사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원칙을 잘 지킨 것을 강점이자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IT 강국이라는 평가답게 ‘비대면’과 ‘온라인’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 경희 구성원의 평가였다.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약점 및 부족한 점이 무엇이라고 느꼈는지 묻는 질문에 ‘개인주의’(343회)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228회), ‘갈등’(212회), ‘이기주의’(84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인주의’라는 키워드가 떠오른 것은 사회적 재난 상황이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현상을 심화시켰고, 경희 구성원은 그런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돋보여

FGI 참여자들은 시의적절한 정부의 대처만큼이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강점이라고 생각했다. 학생G1 F는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잘 대응했고, 우리나라 국민성도 다시 보게 됐다”라고 답변했다. 학생G3 A 또한 “IT 강국답게 대처를 즉각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G1 D 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안 끼치려”는 마음으로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준 것을 한국의 강점으로 꼽았다. 다만 “그런 국민성을 이용해 정부가 너무 억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면 지적했다. 이는 “방역 상황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직원J의 의견과 일치하는 의견이다. 직원G 역시 “여러 정책에 쉽게 적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태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Q.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느낀 우리 사회의 강점이자 자랑이 있다면?



순위	키워드	빈도(회)
1	정부지침준수	369
2	마스크	268
3	대처/대응	189
4	비대면	171
5	빠르다	131
6	방역	128
7	온라인	118
8	적응력	92
9	배달	89
10	단합력	89
기타	공동체, 시스템, 시민의식, 의료	

Q.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느낀 우리 사회의 약점이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순위	키워드	빈도(회)
1	개인주의	343
2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	228
3	갈등	212
4	이기주의	84
5	공동체	80
6	빈부격차	62
7	가짜(뉴스/정보)	56
8	시민의식	52
9	마스크	51
10	의식	50
기타	세대, 선동, 안전불감증	



# 인류의 현재와 미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의료, 스포츠 등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세계적 질서에 편입하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체감했듯 인류사회가 직면한 지구적 난제는 나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자본주의 문명과 인류가 맞닥뜨린 난제,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한 핵심 가치, 미래 문명의 양상에 대해 상상해 보았다. 경희 구성원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기후 위기'를 꼽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기후 위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

현재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로 '기후 위기'가 꼽혔다. 49.0%,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기후 위기'를 선택했다. 2015년 미래리포트 설문조사 당시 1위로 꼽혔던 '국가 간 부의 양극화'는 2위로 밀려났다. 불과 8년 만에 기후 위기가 피부로 다가온 것이다. 불안한 국제 정세를 반영해 '전쟁과 테러'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 2위는 국가 간 부의 양극화

2023년 현재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2,559명(49.0%)의 응답자가 '기후 위기'라고 답했다. 2015년 당시 '기후 위기'를 선택한 응답자는 16.9%(1,672명)에 불과했다. 폭염, 폭우, 한파 등 멀게만 느껴졌던 기후 위기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며 기후 위기 민감도가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2015년 25.8%(2,558명)로 1위에 꼽혔던 '국가 간 부의 양극화'는 2023년에는 13.0%(681명)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679명(13%)의 선택을 받은 전쟁과 테러가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풀이된다. '인종 갈등', '종교 갈등' 등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기후 위기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심각

FGI 참여자들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직원H는 "170Kg짜리 참다랑어가 동해안에서 잡힌다는 뉴스를 보며 기후 위기를 체감했다. 동남아에서나 만날 법한 스콜을 우리나라에서 만난다"라며 "기후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구호에 그치고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학생들도 기후 위기를 가장 심각한 난제로 꼽았다. 해수면이 높아지며 영토가 사라져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례를 들며 기후 위기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교수B는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전 지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후 문제는 인류의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인류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한편 전쟁, 국가 간 빈부격차, 초강대국 간의 갈등 또한 문제상황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Q. 현재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인가? (3개까지 중복 응답)**

현재 인류사회의 가장 큰 문제	2023		2015	
	빈도	%	빈도	%
기후 위기	2,559	49.0	1,672	16.9
국가 간 부의 양극화	681	13.0	2,558	25.8
전쟁과 테러	679	13.0	693	7.0
인구급감	380	7.3	-	-
인구폭등	-	-	178	1.8
에너지 고갈	335	6.4	1,250	12.6
질병	301	5.8	386	3.9
인종 갈등	103	2.0	288	2.9
식량부족	85	1.6	-	-
종교 갈등	30	0.6	468	4.7
생태계 위기	-	-	1,380	13.9
식량 무기화	-	-	301	3.0
기타	69	1.3	738	7.4
총계	5,222	100	9,912	100

\* 2023년 보기에는 '식량 무기화', '인구폭등' 제외, '인구급감', '식량부족'은 새롭게 추가됨



## 50년 후에도 자본주의는 굳건할 것

경희 구성원 절반 이상이 50년 후에도 자본주의가 굳건할 것이라 전망했다. 다른 문명과 결합해 더욱 발전하거나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차세대 산업혁명의 가능성은 지식정보(IT) 분야에서 찾았다. 2015년과 같은 결과이다.

### 자본주의는 더욱 발전하거나 현재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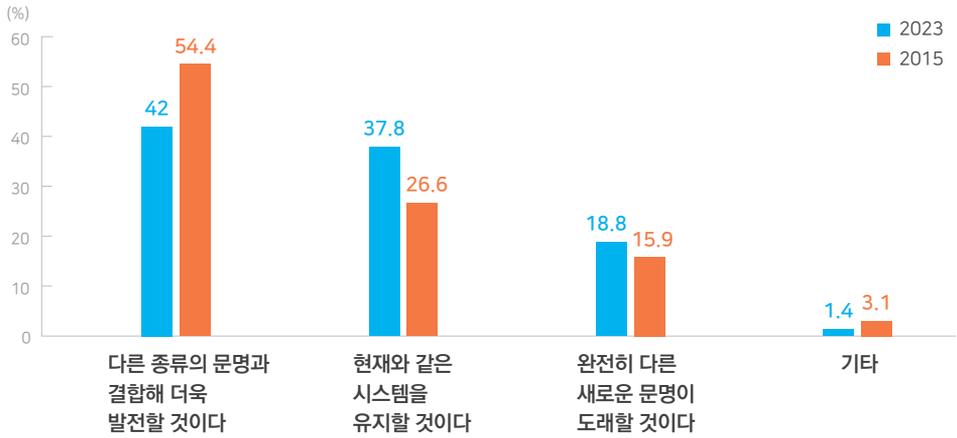
50년 후 자본주의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이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문명과 결합해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42.0%(2,195명)를 차지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12% 포인트 가량 줄어든 수치다. 대신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37.8%(1,972명)로 2015년에 비해 11.2% 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명이 도래할 것'이라는 답변은 18.8%(981명)로 2015년에 비해 2.9% 포인트 증가했다. 자본주의가 지속되리라 전망하면서도 새로운 문명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기타 의견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변형되지만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등이 언급됐다.

### 차세대 혁명은 IT, 생명공학, 우주개발 순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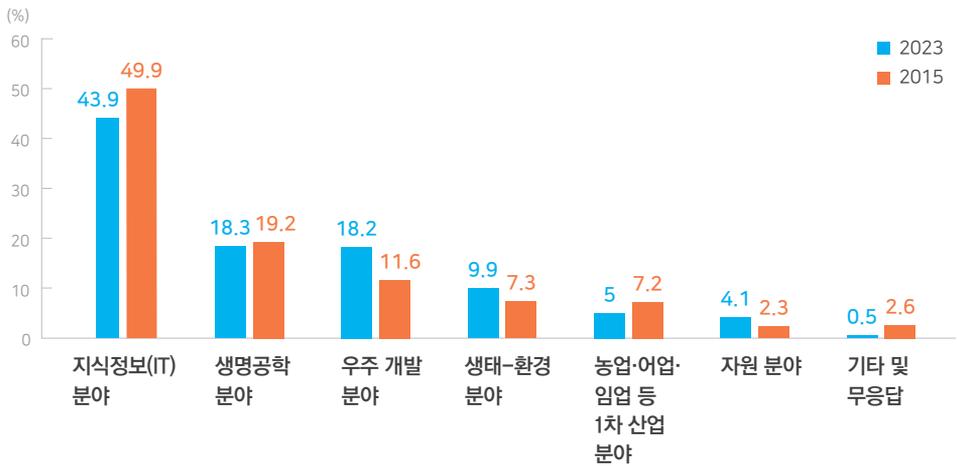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이후, 차세대 산업혁명이 강하게 일어날 산업 분야로 '지식정보(IT) 분야'(43.9%, 2,291명)를 선택한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5년과 같은 결과다. '생명공학 분야'는 18.3%(958명)로 2위를 차지했다.

'우주 개발 분야'는 18.2%(952명)로 3위에 올랐다. 2위인 '생명공학 분야'와 6표 차이다. 이 같은 결과는 8년 사이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대한민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대한민국 첫 무인 달 탐사선 다누리 등 한국의 우주 산업 기술 발전이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Q. 50년 후 자본주의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Q.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이후, 차세대 산업혁명은 특히 어떤 분야에서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가?



##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 건설 ‘어렵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아시아에서 일어날 것이라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경희 구성원 대다수가 50년 후 인간의 폭력성 정도는 전반적으로 완화되기보다 심해질 것이라 예측했으며, 50년 후 세계시민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아시아’

가까운 미래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시아’라는 응답이 52.3%(2,732명)로 가장 많았다. 2015년에 비해 11.4% 포인트 증가했다. ‘아시아’에 이어 ‘중동’(22.2%, 1,161명), ‘유럽’(12.9%, 67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중동’이라고 답한 비율이 16.8% 포인트 줄었고, ‘유럽’이라고 답한 비율은 8.9% 포인트 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아직도 완화되지 않은 남북한 갈등과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의 이해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FGI에 참여한 직원은 “아시아에서도 군사적 위협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어지고 있다”라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기심으로 인한 침략전쟁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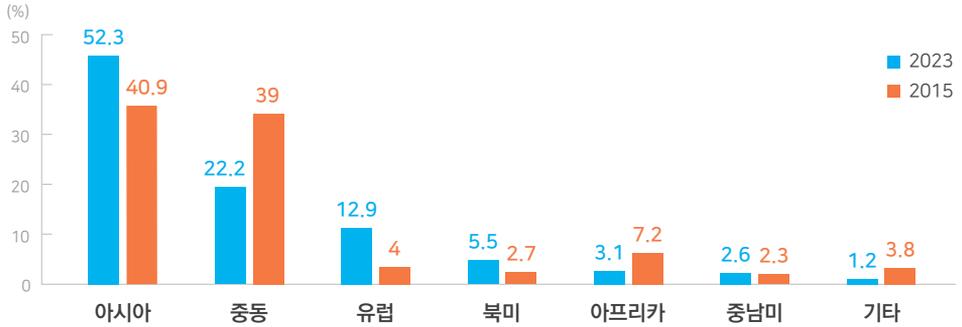
### 인간의 폭력성 지속,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 건설 어려워

50년 후 인간의 폭력성은 어떠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도 위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응답이 늘었다. 응답자의 약 80%가 대체로 심해지거나(49.4%, 2,582명) 현재와 같을 것(33.8%, 1,763명)이라고 답했다. 2015년 응답과 비교했을 때 순위는 변하지 않았으나 인간의 폭력성이 더 심해진다고 답한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인간의 폭력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에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 건설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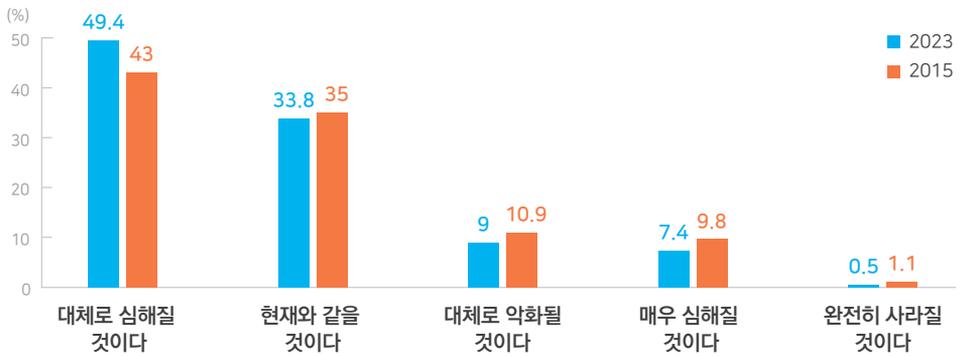
앞으로 50년 안에 모든 폭력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가 건설되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3.8%(4,899명)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렇다’는 답변은 6.2%(323명)로 2015년보다 더 줄었다. 평화는 조금 더 멀어졌다.

FGI에 참여한 학생G1 F는 “기후 위기, 식량난, 전쟁 등 인간의 악한 본성이 다시 드러날 수 있다”라며 “국가 간 힘의 차이를 팬데믹으로 확인했고, 앞으로 국가 간, 계층 간 힘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 제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Q. 가까운 미래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가?**



**Q. 50년 후 인간의 폭력성은 어떠한 것으로 보는가?**



**Q. 앞으로 50년 안에 모든 폭력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가 건설되리라고 보는가?**

2023

**93.8%**

그렇지 않다

**6.2%**

그렇다

2015

**92.2%**

그렇지 않다

**7.5%**

그렇다

##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은 ‘감정’

50년 안에 인공지능(AI)이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0%를 넘었다. 한편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능력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핵심 키워드는 ‘감정’이었다. ‘공감’과 ‘창의력’이 그 뒤를 이었다. FGI에서는 AI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를 사용하는 인간에 방점을 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AI, 인류사회가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앞으로 50년 안에 인공지능(AI)이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을 묻자 70.3%(3,671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AI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FGI에서 나온 의견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AI 자체는 위협이 되지 않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학생들은 AI를 위협 요소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로 영상 매체와 미디어를 꼽았다. 학생G1 D는 “영화에서 AI가 반란을 일으키고 인간을 해하는 내용을 보고 위협적이라고 인식한 것 같다”라며 “AI는 인간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도구다. 인류사회가 발전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학생G1 C는 AI를 소수가 독점하게 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챗GPT의 예를 들며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스스로 사고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염려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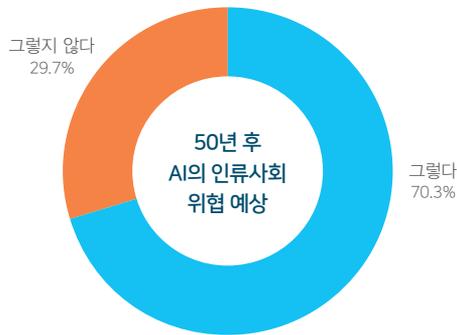
교수C는 “AI는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내는 기술이다. 현재도 인류사회에 많이 공헌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위협 요소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AI가 인류사회가 발전할 기회 요인이 되느냐, 인류사회를 해할 위협 요소가 되느냐는 결국 인간에게 달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AI 시대, 결국은 ‘공감’이다

그렇다면 경희 구성원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능력을 무엇으로 보았을까. 자유 응답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인간의 ‘감정’이었다. ‘감정’은 66회를 기록했다. 다음은 ‘공감’으로 64회 언급됐다. ‘사랑’, ‘마음’, ‘배려’, ‘이타심’, ‘정’이라는 답변과 결을 같이한다. 29회 언급된 ‘창의력’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공감하는 AI는 이미 등장했고, AI는 빅데이터를 통해 인간을 뛰어넘는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인간의 고유능력을 감정과 공감, 창의력으로 본다면 이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대학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Q. 앞으로 50년 안에 인공지능(AI)이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50년 후 시의 인류사회 위협 예상	빈도	%
그렇다	3,671	70.3
그렇지 않다	1,551	29.7
총계	5,222	100



Q.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순위	키워드	빈도(회)
1	감정	66
2	공감	64
3	창의력	29
4	사랑	13
5	마음	9
6	배려	7
7	생각	7
8	판단	4
9	이타심	4
10	욕구	4
기타	인간성, 사고력, 정, 직관	

## 전 지구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경희 구성원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인류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로 '전 지구적 연대'를 선택했다. '전 지구적 연대'는 2023년 새롭게 추가된 보기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 없는 감염병 위기를 겪으며 전 지구적 연대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생명 존중', '나눔과 봉사' 등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가치도 많은 표를 얻었다.

### “모두 연결되어 있다”

'전 지구적 연대'가 가장 높은 비율인 35.4%(1,848명)를 차지하며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로 꼽혔다. 2015년 당시에는 해당 보기가 없었다. 2015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던 '나눔과 봉사'는 2023년 11.9%(624명)로 3위로 떨어졌다. 2위에는 '생명 존중'(21.7%, 1,131명)이 올랐다. 2023년 새롭게 추가된 보기인 '지구를 넘어 우주로 세계관 확장'은 6.9%(359명)로 4위에 올랐다. 기타 의견으로 '환경보호', '배려, 이타심' 등이 있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를 빼놓고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다. FGI에 참여한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며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E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한다”라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장 기름값이 올랐다.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 지구인으로서의 인식이 있어야 지속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 지구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직원B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지구환경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막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같은 것이 없다.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교육도 발전해야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G3 D는 “시대는 급변하는데 교육은 정체되어 있다. AI와 같은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미래 인류사회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G1 E는 “남을 돕는 게 나를 돕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데 당장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한 경우를 많이 본다. 남을 도와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Q. 지속가능한 미래의 인류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미래 인류사회를 위한 가치	2023		2015	
	빈도	%	빈도	%
전 지구적 연대	1,848	35.4	-	-
생명 존중	1,131	21.7	2,699	27.2
나눔과 봉사	624	11.9	2,704	27.3
지구를 넘어 우주로 세계관 확장	359	6.9	-	-
다원주의	339	6.5	2,653	26.8
경제 성장	335	6.4	-	-
개인의 자율성	293	5.6	924	9.3
근검절약	169	3.2	433	4.4
기타	124	2.4	499	5.0
총계	5,222	100	9,912	100

\* 2023년 보기에는 '전 지구적 연대', '지구를 넘어 우주로 세계관 확장'이 새롭게 추가됨

2023	미래 인류사회를 위한 가치	2015
1 전 지구적 연대		나눔과 봉사 1
2 생명 존중		생명 존중 2
3 나눔과 봉사	NEW 전 지구적 연대	다원주의 3
4 지구를 넘어 우주로 세계관 확장		개인의 자율성 4
5 다원주의		근검절약 5

##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존경받을 것

50년 후 가장 유망한 직업 분야는 ‘정보기술(AI) 분야’로 집계됐다. 미래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 AI 분야 직업이 뜬다

50년 후 가장 유망한 직업 분야를 묻자 2,772명(53.1%)의 응답자가 ‘정보기술(AI) 분야’를 꼽았다. 다음으로 ‘우주 공학 분야’(35.0%, 1,830명), ‘로봇 산업 분야’(34.6%, 1,808명), ‘의료 건강 분야’(32.8%, 1,715명), ‘생명공학 분야’(29.7%, 1,549명), ‘정신 건강 분야’(27.9%, 1,459명)가 뒤를 이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직업의 미래 보고서 2023’의 예측과 비슷하다. WEF는 2023년에서 2027년 사이 전 세계 노동자의 현재 인력 고용 비율을 근거로 예상되는 일자리를 발표했다. AI 및 러닝머신 전문가, 핀테크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등 AI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많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이미 혁신적인 발전을 이룬 정보기술(AI) 분야가 현재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차세대 산업혁명이 일어날 분야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가 지식정보 분야를 꼽은 것과도 연결된다.

### 2위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3위는 전문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50년 후 가장 존경받을 인간형에 대해서는 57.6%(3,010명)의 응답자가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을 꼽았다. 3개 이내의 항목을 중복 선택하도록 한 설문에서 2위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39.5%, 2,064명), 3위는 ‘전문지식을 추구하는 사람’(36.9%, 1,926명)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벗어나 나오기 어려운 응답이다. 현재 우리는 출산을 저하와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기후 위기와 같은 범지구적, 전 인류적인 문제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의 한계를 느낀 응답자들이 ‘다른 세상’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기에, 미래에 존경받을 인간형을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으로 꼽았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은 ‘다른 세상’을 위해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전문지식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는 소망을 나타냈다.

**Q. 50년 후 가장 유망한 직업 분야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50년 후 가장 유망한 직업 분야 예상	빈도	%
정보기술(AI) 분야	2,772	53.1
우주 공학 분야	1,830	35.0
로봇 산업 분야	1,808	34.6
의료 건강 분야	1,715	32.8
생명공학 분야	1,549	29.7
정신 건강 분야	1,459	27.9
음식 식료 분야	500	9.6
농업, 어업, 임업 분야	493	9.4
사회복지 분야	481	9.2
예술 분야	438	8.4
게임산업 분야	302	5.8
도시계획 분야	266	5.1
스포츠 레저 분야	256	4.9
교육 분야	175	3.4
교통 운송 분야	159	3.0
종교 분야	158	3.0
경영 기획 분야	133	2.5
건축 및 토목 분야	99	1.9
수의학 분야	99	1.9
각급 공무원	53	1.0
소방 안전 분야	41	0.8
기타	40	0.8
총계	14,826	

**Q. 50년 후 가장 존경받는 인간형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50년 후 가장 존경받는 인간형 예상	빈도	%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	3,010	57.6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2,064	39.5
전문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1,926	36.9
자기 개성을 완성하는 사람	1,797	34.4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사람	1,787	34.2
자연과 더불어 자급자족하는 사람	1,209	23.2
탐험가 등 모험심에 불타는 사람	709	13.6
기타	38	0.7
총계	12,540	

##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미래

50년 후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재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50년 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언어는 '영어'로 예측됐다. 경희 구성원이 생각하는 미래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국가 간 장벽 아직 필요해

50년 후 국가의 대표적 형태는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6%(2,225명)가 '현재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할 것'이라 답했다. 2015년 조사 때 같은 응답은 27.0%(2,678명)에 불과했다. 한편 2015년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국가 간 지역연합체 탄생'은 28.1%(1,468명)의 지지를 받으며 2위로 밀려났다. '초국적 기업이 국가 기능을 압도할 것'(21.8%, 1,140명)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줄었다. 국가 간 전쟁과 갈등을 보며 국가 간 '장벽'의 필요성을 느낀 탓으로 해석된다.

### 현재도 미래도 여전히 '영어'

50년 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언어로 '영어'가 가장 많이 꼽혔다. 2015년과 같은 결과이다. 2015년 59.1%에서 2023년 82.8%(4,323명)로 영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응답자가 늘어났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15년 2위에 올랐던 '중국어'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2015년 25.4%의 선택을 받은 중국어는 2023년 7.9%(413명)의 응답자에게만 선택받았다. 얼어붙은 한·중 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번역 시스템으로 언어 장벽 소멸'(13명)을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아시아, 지구 밖 문명도 기대

50년 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가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4.9%(1,823명)가 '아시아'를 선택했다. '북미'는 22.4%(1,168명), '유럽'은 21.2%(1,106명)로 뒤를 이었다. '오세아니아'를 선택한 응답자는 14.6%(760명), 아프리카를 선택한 응답자는 2.7%(141명), 남미를 선택한 응답자는 2.5%(133명)로 나타났다. 2015년 1위를 기록했던 유럽이 3위로 떨어졌다. 전쟁 및 이상 기후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 유럽의 다양한 문제를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경희 구성원은 앞으로 50년 안에 인류가 지구 밖 행성이나 위성에 새로운 문명 기지를 건설할 확률을 29.4%로 예측했다. 2015년 때보다 상승한 수치다. 차세대 산업혁명이 일어날 분야에 우주 개발 분야가 3위에 오른 것, 50년 후 가장 유망한 직업 분야에 우주 공학 분야가 2위에 오른 것과 연결된다.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Q. 50년 후 국가의 대표적 형태는 어떠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50년 후 국가의 대표적 형태 예상	2023		2015	
	빈도	%	빈도	%
현재와 유사한 형태 유지	2,225	42.6	2,678	27.0
국가 간 지역연합체 탄생	1,468	28.1	3,608	36.4
초국적 기업이 국가 기능을 압도	1,140	21.8	2,681	27.0
세계 정부 수립으로 단위 국가 해체	376	7.2	830	8.4
기타	13	0.2	115	1.2
총계	5,222	100	9,912	100

**Q. 50년 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될 언어는?**

50년 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될 언어 예상	2023		2015	
	빈도	%	빈도	%
영어	4,323	82.8	5,857	59.1
중국어	413	7.9	2,514	25.4
한국어	190	3.6	423	4.3
새로운 세계 공용어	160	3.1	410	4.1
스페인어	73	1.4	395	4.0
아랍어	32	0.6	141	1.4
기타	28	0.6	172	1.8
총계	5,222	100	9,912	100

**Q. 50년 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50년 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예상	2023		2015	
	빈도	%	빈도	%
아시아	1,823	34.9	2,358	23.8
북미	1,168	22.4	758	7.7
유럽	1,106	21.2	3,385	34.1
오세아니아	760	14.6	2,012	20.3
아프리카	141	2.7	464	4.7
남미	133	2.5	545	5.5
기타	91	1.7	390	3.9
총계	5,222	100	9,912	100

**Q. 앞으로 50년 안에 인류가 지구 밖의 행성 또는 위성에서 새로운 문명 기지를 건설할 확률은?**

**29.4%**



# 대학과 고등교육

내가 대학 교육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외 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대학과 고등교육>에서는 국내외 대학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고 미래의 학생선발 방식, 대학평가, 재정확보 방안, 미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 등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전환의 시대, 미래 사회가 요청하는 대학다운 대학의 요건을 살펴보았다.

## 대학 교육을 받는 이유, '취업'

대학 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대비'로 나타났다. 다음은 '학벌'이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학벌'을 선택한 응답자가 소폭 늘었다. 현재 국내외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한 '취업역량 제고'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전공지식 전수'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취업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 “대학은 다채로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곳”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현재 대학 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취업 대비'를 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33.4%(1,534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벌'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5.8%(1,182명)를 차지했다. 약 60%가 대학에 다니는 이유로 실용적 측면을 꼽은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학문 탐구'를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5.1%(1,150명)로, 2015년에 비해 6.5% 포인트 늘어나며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치관 형성'이라 응답한 이는 448명(9.8%)으로 2015년에 비해 5.5% 포인트 줄었다.

FGI를 통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자기 경험을 풀어내며 다양한 이유를 언급했다.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대학에 다닌다거나,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서,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다면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대학에 다닌다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G3 C는 “대학에 다닌다는 것은 다채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학에 진학한 이유는 취업이나 학벌이 맞지만 대학에 다니며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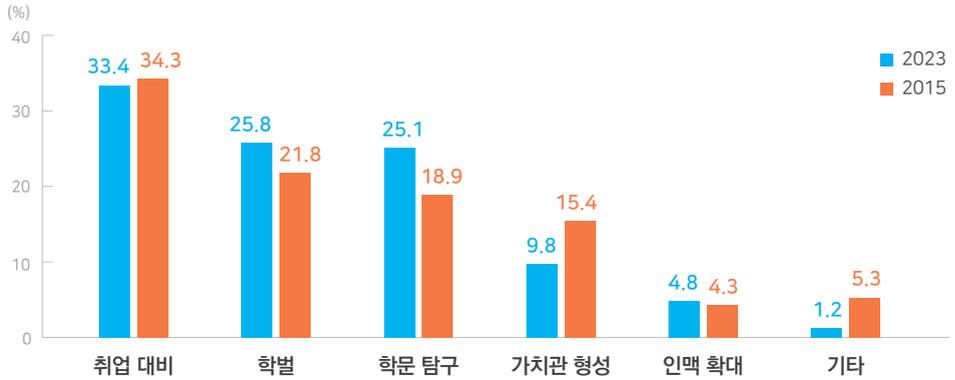
### 대학은 '취업역량 제고' 위해 '전공지식 전수'해야

현재 국내외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한 '취업역량 제고'(55.8%, 2,912명)로 나타났다. 대학 교육을 받는 이유와 맞아떨어지는 결과다. 이 문항은 14개 선택지 중 3가지 이내로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전공지식 전수'는 '취업역량 제고'와 비슷한 빈도인 2,875명(55.1%)의 선택을 받으며 2위에 올랐다. '경제적 가치 창출'은 전체 응답의 37.2%(1,942명)로 뒤를 이었다.

교수C는 “현재 국내 대학의 목표가 취업에 있다”라며 “대학은 인류사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종합대학으로서의 의미가 더 커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수H 또한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교수H는 “대학의 존재 이유는 지성인의 양성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성인을 만드는 교육이 대학 교육이다”라고 언급했다.

취업역량을 키우고 전공지식을 전수하는 것 또한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지성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 Q. 현재 내가 대학 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 Q. 현재 국내외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현재 국내외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2023		2015	
	빈도	%	빈도	%
취업역량 제고	2,912	55.8	2024	20.4
전공지식 전수	2,875	55.1	2866	28.9
경제적 가치 창출	1,942	37.2	1580	15.9
사고력 확장	1,140	21.8	1463	14.8
관계 형성	1,121	21.5	1286	13.0
리더 양성	1,068	20.5	1191	12.0
진리 탐구	643	12.3	1287	13.0
다양성 추구	546	10.5	1076	10.9
주체성 함양	489	9.4	696	7.0
사회공헌	452	8.7	758	7.6
인간다움 추구	361	6.9	1117	11.3
자아 성찰 강조	327	6.3	892	9.0
문명사회 모색	301	5.8	508	5.1
기타	50	1.0	157	1.6
총계	14,177		16,901	



## 대학, 더 나은 세계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대학은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경희 구성원의 생각이다. 기여도를 5점 척도로 나타내면 3.25점으로, 2015년 2.77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긍정적인 변화이다.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는 대학의 기능은 ‘전공지식 전수’로 나타났고, 미래 대학은 ‘사고력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대학, ‘전공지식 전수’해야

현재 국내외 대학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답했다.(37.2%, 1,942명) 2015년 당시 같은 응답이 17.3%(1,715명)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20% 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매우 그렇다’는 답변도 2015년 2.0%(149명)였던 것이 2023년에는 5.8%(305명)로 증가했다. 부정적인 의견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현재 국내외 대학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어떤 기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전공지식 전수’(43.7%, 2,281명)를 선택했다. ‘사고력 확장’을 꼽은 응답자는 30.8%(1,608명), ‘관계 형성’을 선택한 응답자는 28.3%(1,479명), ‘취업역량 제고’를 택한 응답자는 26.3%(1,375명)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 당시 1위를 차지했던 ‘인간다움 추구’(32.9%, 3,263명)는 2023년 11위로 떨어졌다. 대신 ‘전공지식 전수’와 ‘취업역량 제고’의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5년 4위였던 ‘자아 성찰 강조’(21.2%, 2,097명) 또한 13위로 밀려났다. 대학의 기능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변화가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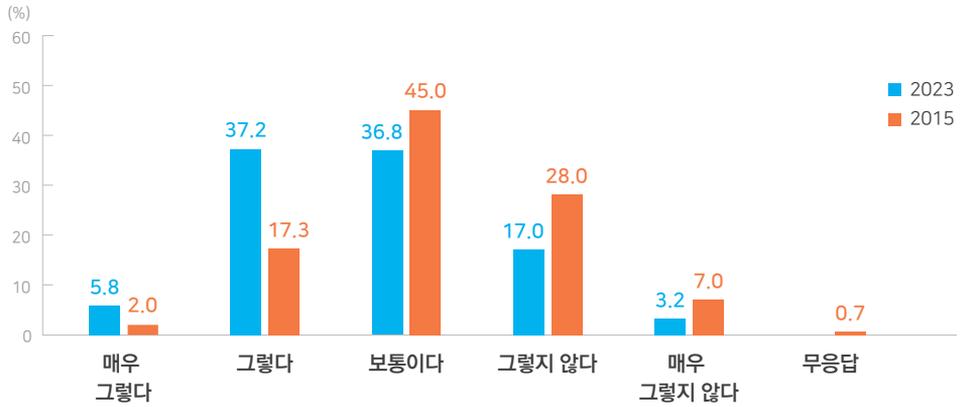
### 미래 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사고력 확장’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래 대학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14개 선택지 중 3가지 이내로 중복 응답하도록 물었다. ‘사고력 확장’(38.1%, 1,988명)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인간다움 추구’(31.8%, 1,660명), ‘다양성 추구’(29.5%, 1,542명), ‘진리 탐구’(23%, 1,203명), ‘자아 성찰 강조’(22.2%, 1,159명), ‘주체성 함양’(22.2%, 1,158명), ‘사회 공헌’(21.2%, 1,109명) 등이 고루 선택됐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FGI에서는 미래 대학을 상상해 보았다. 사이버로 전환돼 캠퍼스가 작아질 것이라 의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란 공간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학생G2D는 미래에는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만 대학에 진학해 진학률이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학생들끼리의 교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인간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 예상하는 학생도 있었다. 대학만이 할 수 있는 교육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Q. 현재 국내외 대학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내외 대학의 사회 기여도	2023년		2015년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305	5.8	149	2.0
그렇다	1,942	37.2	1,715	17.3
보통이다	1,921	36.8	4,430	45.0
그렇지 않다	886	17.0	2,805	28.0
매우 그렇지 않다	168	3.2	737	7.0
무응답	-	-	76	0.7
총계	5,222	100	9,912	100



Q. 현재 국내외 대학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대학의 어떤 기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현재 국내외 대학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는 기능	2023		2015	
	빈도	%	빈도	%
전공지식 전수	2,281	43.7	1,632	16.5
사고력 확장	1,608	30.8	2,360	23.8
관계 형성	1,479	28.3	982	9.9
취업역량 제고	1,375	26.3	546	5.5
경제적 가치 창출	1,094	20.9	550	5.5
리더 양성	1,008	19.3	972	9.8
진리 탐구	991	19.0	2,003	20.2
다양성 추구	902	17.3	2,170	21.9
주체성 함양	682	13.1	1,688	17.0
사회공헌	634	12.1	1,460	14.7
인간다움 추구	556	10.6	3,263	32.9
문명사회 모색	531	10.2	696	7.0
자아 성찰 강조	509	9.7	2,097	21.2
기타	41	0.8	42	0.4
총계	13,650		20,461	



**Q.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래의 대학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미래 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	2023		2015	
	빈도	%	빈도	%
사고력 확장	1,988	38.1	2,063	20.8
인간다움 추구	1,660	31.8	1,663	16.8
다양성 추구	1,542	29.5	2,360	23.8
진리 탐구	1,203	23.0	2,858	28.8
자아 성찰 강조	1,159	22.2	3,859	38.9
주체성 함양	1,158	22.2	510	5.1
사회공헌	1,109	21.2	751	7.6
전공지식 전수	1,083	20.7	2,675	27.0
리더 양성	968	18.5	620	6.3
관계 형성	840	16.1	1,193	12.0
문명사회 모색	726	13.9	661	6.7
경제적 가치 창출	638	12.2	102	1.0
취업역량 제고	431	8.3	910	9.2
기타	3	0.0	5	0.0
총계	14,505		20,225	

2023	미래 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	2015
1 사고력 확장	 사고력 확장 5 → 1위 인간다움 추구 6 → 2위	1 자아 성찰 강조
2 인간다움 추구		2 진리 탐구
3 다양성 추구	 자아 성찰 강조 1 → 5위 전공지식 전수 3 → 8위	3 전공지식 전수
4 진리 탐구		4 다양성 추구
5 자아 성찰 강조		5 사고력 확장

## ‘인생포트폴리오’로 학생 선발해야

대학 입시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풀지 못한 난제다. 입시 전쟁을 통과해 경희 구성원이 된 이들에게 미래 대학의 가장 바람직한 학생 선발 방식을 물었다. 응답자의 36.9%가 ‘인생포트폴리오 심사’를 선택했다. 현재 대학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교수자에 의한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 대학 입시에 대한 피로 노출

경희 구성원에게 미래 대학의 가장 바람직한 학생 선발 방식을 물었다. 36.9%(1,92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답변은 ‘인생포트폴리오 심사’였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고등학교 때 활동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수시 전형에 대한 피로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방식 유지’를 택한 응답자도 전체의 35.0%(1,827명)로 집계됐다. 교육 제도가 바뀌면서 혼란을 경험했던 응답자들이 더 이상의 입시제도 변화는 없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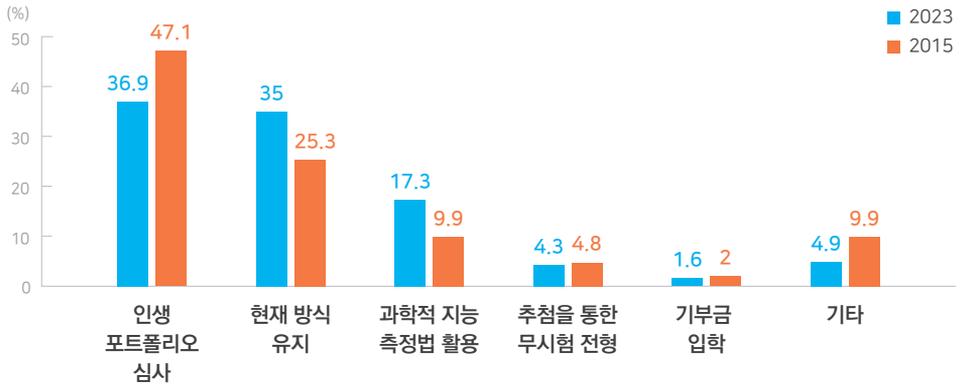
‘과학적 지능 측정법 활용’(17.3%, 904명), ‘추첨을 통한 무시험 전형’(4.3%, 225명), ‘기부금 입학’(1.6%, 83명) 등은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다른 문항에 비해 78가지의 매우 다양한 기타 의견이 나왔다. 대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100% 정시, 95% 정시, 90% 정시 등 정시 위주의 방식을 언급한 이도 많았고, 대학의 자율적인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의지를 본다거나, 학과별로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 ‘교수자에 의한 절대평가’ 방식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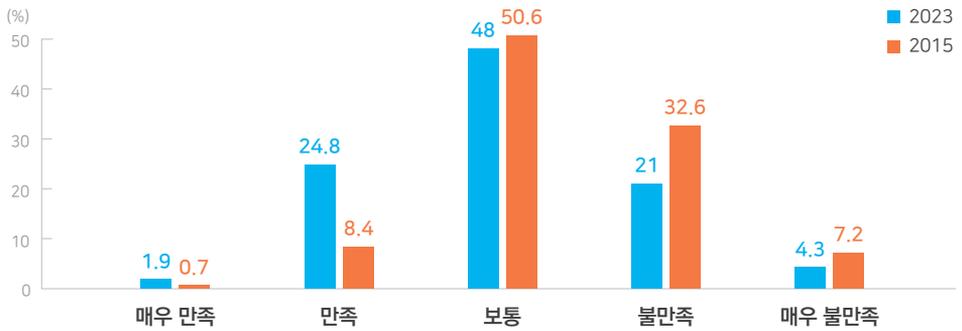
현재 대학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8%(2,505명)가 ‘보통’을 택했다. ‘만족’은 24.8%(1,294명), ‘매우 만족’은 1.9%(101명)를 차지했다. 2015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만족도가 꽤 상승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보다 나은 평가방식을 연구한 결과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대학의 학업성취도 평가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자 ‘교수자에 의한 절대평가’가 35.8%(1,867명)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음은 ‘교수자에 의한 상대평가’(22.0%, 1,151명)가 차지했다. 두 답변 모두 2015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평가 자체를 없앤다’(16.2%, 848명)거나 ‘학생 상호 간의 다면평가’(16.0%, 833명)를 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교수자가 평가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만큼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은 12명이 51가지 의견을 냈다. 교수자에 의한 상대평가와 학생 상호 간의 다면평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를 기반으로 정량적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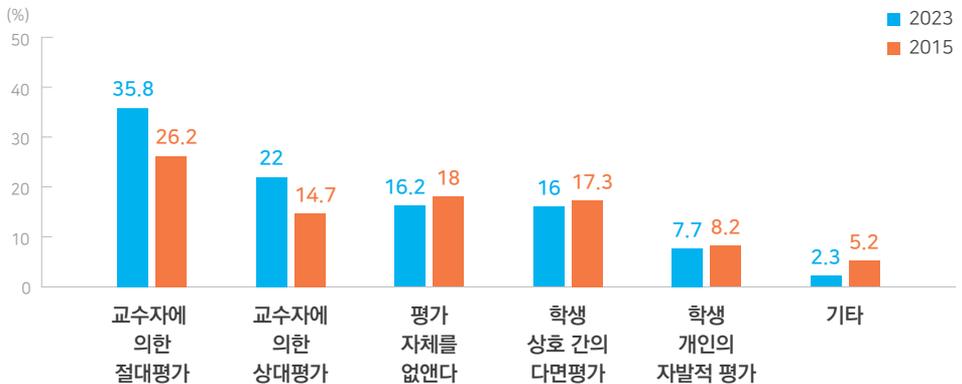
**Q. 미래 대학의 가장 바람직한 학생 선발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Q. 현재와 같은 대학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에 만족하는가?**



**Q. 대학의 학업성취도 평가방식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미래 대학은 ‘현재와 같을 것’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대학 무용론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 미래 대학의 모습은 지금과는 현저히 다를 것이란 예측도 무성하다. 그러나 경희 구성원은 50년 후 미래 대학의 변화에 대해 ‘현재와 같은 형태’일 것으로 예측했다. ‘대학 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전환’될 것이란 의견도 많았다. 한편 대학의 재정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비영리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지키며 재정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비영리 교육기관 정체성 지키며 재정사업 병행해야

대학은 교육기관이다. 경희 구성원은 ‘대학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재정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대학의 재정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보았다(36.8%, 1,920명). ‘정부지원금을 통해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답변이 18.7%(979명)로 집계되며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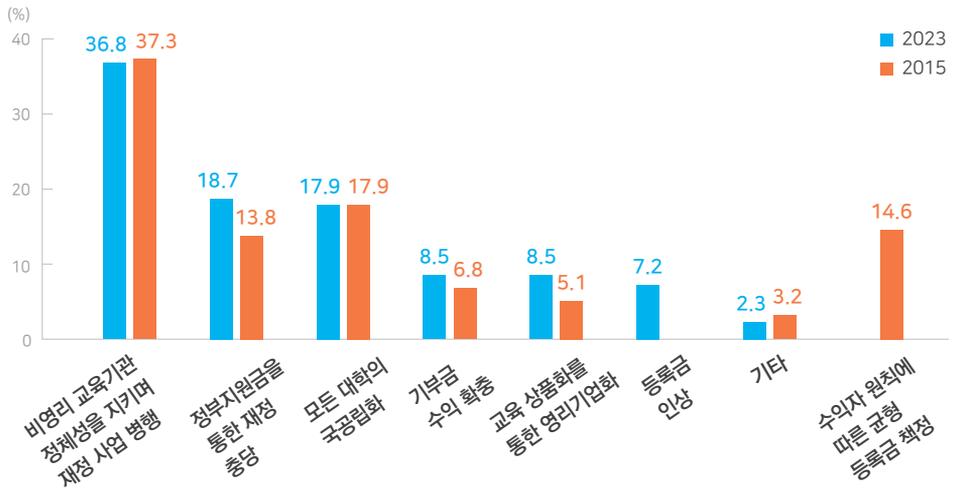
‘모든 대학이 국·공립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17.9%, 937명). ‘기부금 수익 확충’(8.5%, 445명)이나 ‘교육 상품화를 통한 영리기업화’(8.5%, 442명), ‘등록금 인상’(7.2%, 377명) 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대학 교육 불필요하다’는 답변 크게 늘어

그렇다면 경희 구성원은 미래 대학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을까. 50년 후 미래 대학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느냐고 묻자 1,638명(31.4%)가 ‘현재와 같은 형태’라 답했다. 다음으로 ‘대학 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답변이 22.1%(1,153명), ‘대학 교육이 불필요해질 것’이란 예측도 20.7%(1,080명)로 나타났다.

학생과 직원의 답변이 엇갈렸다. 학생의 경우 ‘현재와 같은 형태’(32.6%, 1,495명)가 가장 높은 반면, 직원은 ‘대학 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전환’(39.0%, 247명)이 가장 높았다. FGI에서 직원은 “미래에는 인구 비율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대학도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 본다”라고 예측했다. 한편 2015년 8.6%의 비율을 보였던 ‘대학 교육이 불필요해짐’이 20.7%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대학에 졸업하지 않고도 취·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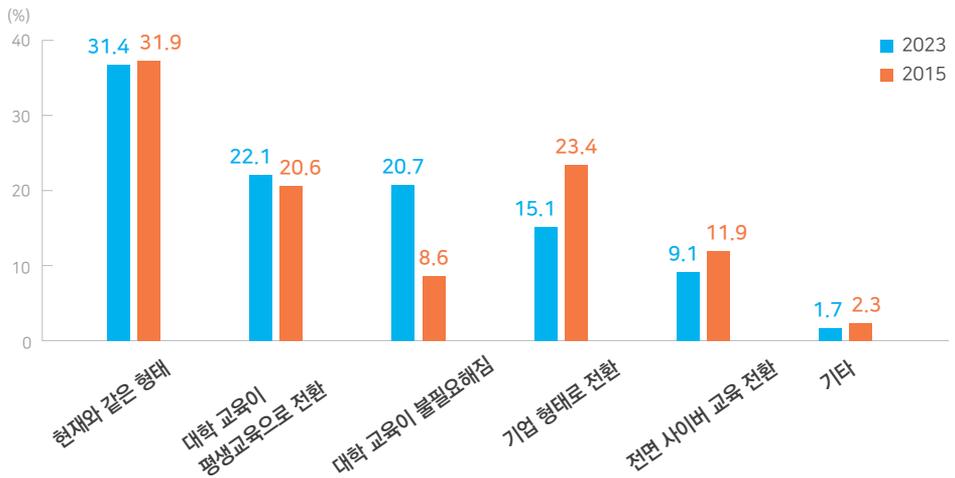
**Q. 대학의 재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수익자 원칙에 따른 균형 등록금 책정'은 2023 조사에서는 제외

\*\* '등록금 인상'은 2023 조사에서 추가

**Q. 50년 후 미래 대학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 미래 대학의 존경받는 교수는 ‘뛰어난 질문자’

경희 구성원의 약 75%가 대학에 대한 외부 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0% 정도에 그쳤다. 미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은 ‘학생의 사고력을 높여주는 뛰어난 질문자’로 그려졌다.

### 대학평가, ‘강의의 질적 우수성’ 평가해야

대학에 대한 외부 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약 75% (그렇다 50.9%, 매우 그렇다 24.3%)를 넘었다. 2015년 약 54%보다 20% 넘게 증가한 수치다. ‘보통이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14.5%였고,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약 10%(그렇지 않다 8.1%, 매우 그렇지 않다 2.3%)였다. 50년 후에도 대학평가가 필요하다면 평가 기준은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 13개 선택지 중 3개 이내를 자유 선택하도록 한 문항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강의의 질적 우수성’(38.6%, 2,014명)이었다. 교육기관인 대학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는 38.5%(2,008명)를 차지했다. 직원의 응답률만 보면 51.6%(327명)로 직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다. 향후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이어 ‘학문적 탁월성’(35.8%, 1,872명), ‘대학 간의 국내, 국제적 연대’(28.0%, 1,460명), ‘교육 프로그램의 창의성’(27.7%, 1,447명) 등이 뒤를 따랐다.

### 사고력을 높여주는 뛰어난 질문자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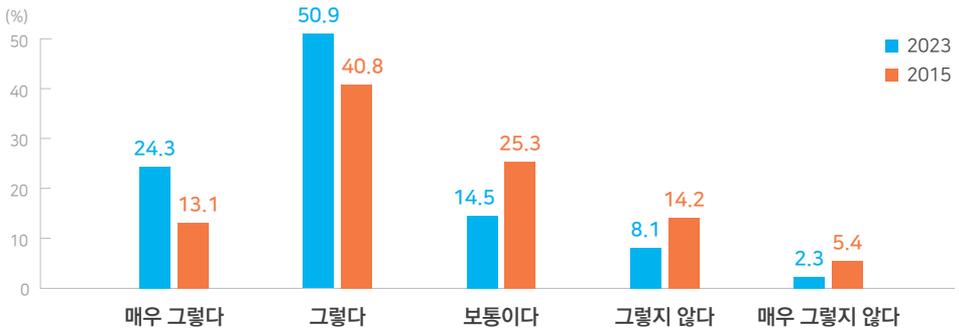
미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는 어떤 모습일까. 가장 많은 이가 ‘학생의 사고력을 높여주는 뛰어난 질문자’(40.5%, 2,116명)를 꼽았다.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스승’이라는 답변은 33.1%(1,731명)로 그 뒤를 이었다. ‘창의적인 전문지식 연구자’는 응답자의 30.6%(1,596명)가 ‘강의 역량이 뛰어난 교육자’는 응답자의 26.8%(1,398명)가 이상적인 교수의 모습으로 선택했다. ‘기업경영 등 실무 능력이 높은 현장형 전문가’는 20.3%(1,058명)가 선택했다.

이 같은 결과는 미래 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꼽힌 ‘사고력 확장’과 맥을 같이 한다. 학생들은 답을 주는 교수가 아닌 질문을 던지는 교수를 원한다. 교수자의 ‘뛰어난 질문’으로 학생들은 더 ‘창의적인 질문’을 만들고 그들만의 답을 찾아나갈 것이다.

### Q. 50년 후 대학평가의 핵심요소는 무엇이 될 것으로보는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50년 후 대학평가 핵심 요소	2023	
	빈도	%
강의의 질적 우수성	2,014	38.6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2,008	38.5
학문적 탁월성	1,872	35.8
대학 간의 국내, 국제적 연대	1,460	28.0
교육 프로그램의 창의성	1,447	27.7
국내외 대학 평가지수	1,248	23.9
취업률	1,174	22.5
인간 교육	1,019	19.5
명성 있는 교수진	795	15.2
졸업 후 인맥	632	12.1
학교 시설	574	11.0
교수와 학생 관계	330	6.3
기타	18	0.3
총계	14,573	

## Q. 대학에 대한 외부 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Q. 미래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미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	2023		2015	
	빈도	%	빈도	%
학생의 사고력을 높여주는 뛰어난 질문자	2,116	40.5	1,348	13.6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스승	1,731	33.1	2,622	26.5
창의적인 전문지식 연구자	1,596	30.6	1,704	17.2
강의 역량이 뛰어난 교육자	1,398	26.8	1,159	11.7
기업경영 등 실무 능력이 높은 현장형 전문가	1,058	20.3	519	5.2
사회진출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	722	13.8	373	3.8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비판적 지식인	612	11.7	543	5.5
평생 교류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	514	9.8	712	7.2
기타	3	0.0	932	9.4
총계	9,747		9,912	100

\*2015년 설문조사는 단일 응답으로 진행

2023	미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	2015
1 학생의 사고력을 높여주는 뛰어난 질문자	↑ 학생의 사고력을 높여주는 뛰어난 질문자 3 → 1위 기업경영 등 실무 능력이 높은 현장형 전문가 7 → 5위	1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스승
2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스승		2 창의적인 전문지식 연구자
3 창의적인 전문지식 연구자	↓ 평생 교류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 5 → 8위	3 학생의 사고력을 높여주는 뛰어난 질문자
4 강의 역량이 뛰어난 교육자		4 강의 역량이 뛰어난 교육자
5 기업경영 등 실무 능력이 높은 현장형 전문가		5 평생 교류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

## ‘비대면 수업’,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대학 교육, 대학 사회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비대면이었다. ‘비대면/온라인/원격수업 활성화와 발전’이 다른 의견보다 많이 언급됐다. FGI에서는 비대면 상황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구성원 간 연대, 유대 많이 약해져 “대학 생활이 회색빛이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학 교육, 대학 사회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응답하는 문항에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비대면’이었다. ‘비대면/온라인/원격수업 활성화와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주요 의견으로 ‘관계/교류의 부재, 단절’, ‘사회성 저하’, ‘대면 활동/경험 감소’, ‘교육의 질 저하’, ‘소속감/유대감 약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한 내용이 많았다. 한편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이나 ‘절대평가/평가방식 변화’와 같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다.

FGI에서도 비대면 상황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었다. 학생들은 먼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학생G1 B는 “대학 생활이 회색빛이 됐다. 코로나 이전에는 MT, 교수님과의 교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굉장히 활발했고 행복했다. 23학년 새내기를 보면 내가 누렸던 것을 많이 향유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운 심정을 드러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총학생회에서 활동했다는 학생G2 A는 “대학은 교수님으로부터의 배움과 학생 자치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기간 총학생회 활동을 하며 학생 자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았다”라며 “구성원의 연대나 유대가 많이 약해졌다. 지금의 대학은 절반의 상태인 것 같다. 지금은 다시 꽃을 피워 가야 할 시간이다”라고 밝혔다.

### 비대면 교육의 효율성으로 교육 기회 확대될 것

다른 구성원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맞닥뜨린 ‘비대면’의 한계에 대해 공감했지만, 가능성도 발견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수B는 “과거에는 대면 교육이 제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여러 틀이 개발되고, 경험치가 쌓이며 비대면 교육이나 학습도 대면 교육 못지않게 효율성이 있고, 강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석학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긴 어렵지만, 시간간을 초월한 온라인에서는 현장감을 느끼며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어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리라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교수J는 두 가지 문제를 꺼냈다. 먼저 “대학 생활에서는 중·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어떤 일을 같이할 수 있는, 사회 진출 전 단계를 경험하는데 그게 송두리째 빠진 상황이다”라며 “두 번째 문제는 교육이다. 교수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직접 대면하며 이야기하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결국

현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이해도 같은 것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대학은 학생들을 잘 교육해 배출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대학에서의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동시에 또 다른 방식의 교육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준 시간이었다. ‘절반의 대학’을 벗어나 교육과 학습, 구성원 간 교류가 ‘꽃 피는 대학’이 되기 위해 어떤 비전과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논의가 시급하다.

**Q.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대학 교육, 대학 사회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주요 의견>**

- “비대면/온라인/원격수업 활성화와 발전”
- “관계/교류의 부재, 단절”, “사회성 저하”
- “대면 활동/경험 감소”
-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
- “교육의 질 저하”
- “소속감/유대감 약화”
- “공간/건물이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님을 인식”
- “절대평가/평가방식 변화”

## 챗GPT,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챗GPT, BARD와 같은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이 대학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과제가 없어질 것’, ‘과제형식이 변화할 것’이 주요 의견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과제’일 것으로 예측된다. ‘창의성’이나 ‘사고력’ 등의 키워드도 등장했다. ‘인공지능의 창의적 활용 능력이 관건이 될 것’, ‘창의적 질문이 중요해질 것’ 등의 의견에서 볼 수 있듯 ‘창의성’이라는 키워드도 관심이 높았다. ‘논문/과제 성과 평가방식이 재고되어야 할 것’, ‘표절/저작권 이슈가 확산될 것’과 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도 많았다.

### 필요한 건 ‘질문하는 능력’

FGI에서 학생들은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을 대학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와 관련해 대학 교육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변화해야 하는지 상상하고 예측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G1 B는 “암기 위주의 지식 확인형 시험이나 강의는 많이 없어지고, 대신 어떤 질문을 통해 정보를 얻어낼 것인지 학습하는 교육 과정이 생길 것”이라며 “예를 들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시로는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자기 생각과 어떻게 접목해 과제물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방식으로 대학 강의를 바뀔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다른 학생도 주입식 교육은 약화된다는 데 동의하며 질문하는 능력을 강조했다. 대학 교육 또한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예측하기도 했다. 또한 창의성,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교육에 스며드는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 대학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한편 직원은 “챗GPT는 교수와 학생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행정에도 많이 쓰일 것”이라며 “교수와 학생보다 직원은 챗GPT 경험이 적다”라는 것을 밝히며 대학 행정에서의 활용방안 또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교수들도 AI 시대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블루오션’을 찾거나 대학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수B는 “대학은 쏟아져 나오는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라면서도 “AI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 늘 윤리 문제가 등장한다. AI가 학습하기 어려운 윤리적인 문제나 대학 본연의 영역, 즉 사람 대 사람으로 교육할 수 있는 영역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AI를 활용해 손쉽게 정보를 얻고, 관심 분야를 깊이 학습할 수 있는 시대다.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그렇다고 대학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말은 아니다. 지성인 양성 등 대학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대 변화를 잘 읽어내고,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학의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Q. 챗GPT, BARD와 같은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이 대학 교육, 대학 사회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주요 의견 - 양날의 칼>

- “과제가 없어질 것”, “과제형식이 변화할 것”
- “시험방식이 변화할 것”
- “수업 준비/교육방식이 변화할 것”
- “인공지능의 창의적 활용 능력이 관건이 될 것”
- “논문/과제 성과 평가방식이 재고되어야 할 것”
- “표절/저작권 이슈가 확산될 것”
- “지식 전달보다 교양 함양/인문학이 중요해질 것”
- “지식전달자로서의 교수 역할이 변화할 것”
- “학생들의 사고력/창의성은 저하, 인공지능 의존성은 증가할 것”
- “창의적 질문이 중요해질 것”



# 경희의 현재와 미래

현재 '나'는 경희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경희대에 대한 자부심은 어느 정도인가. <경희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구성원 만족도와 경희대의 강점 및 약점, 미래 경쟁력 분야와 경희 리더 그룹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확인하고 미래 경희의 모습과 위상을 예상해 보았다. 경희 구성원의 만족도와 자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이어 '교양교육'이 경희대의 강점으로, '동문의 사회진출'이 경희대의 약점으로 꼽혔다. 인문성을 갖춘 지성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 63.5%, 구성원으로서 자부심 느낀다

현재 경희대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성원의 생각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약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5년 조사 때보다 조금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도 마찬가지다. 응답자의 약 64%가 경희 구성원으로서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 부정적인 평가는 약 9%

경희대학교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문항에서 ‘대체로 좋다(좋다, 아주 좋다)’는 의견이 전체의 61.3%로 나타났다. 현재 경희대학교에 대한 종합 평가를 묻자 ‘좋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3.7%(2,802명), ‘아주 좋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7.6%(39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저 그렇다’라는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29.7%(1,549명)로 조사됐으며, ‘좋지 않다’라는 응답은 7.6%(399명), ‘아주 좋지 않다’라는 응답은 1.5%(77명)로, 부정적 평가를 보인 응답자가 9.1%(476명)를 차지했다. 열 명 중 한 명꼴이다. 이 같은 결과는 2015년 종합 평가와도 대체로 유사하다.

### 학생들, 대학 인지도·전공교육·동문 활약에 자부심 느껴

경희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지 물었다. 전체 구성원의 63.5%(3,316명)가 경희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2015년(58.2%)에 비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FGI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요소는 학교의 인지도, 전공 교육에 대한 만족, 사회에 진출한 동문의 활약과 관계가 깊었다. 학생G4 J는 “제가 전공한 태권도는 경희대의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아 자부심이 느껴지고, 다른 대학원보다 우리 대학원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으며, 학생G4 E는 “관련 분야의 요직에 선배들이 많아 대외 활동하는 데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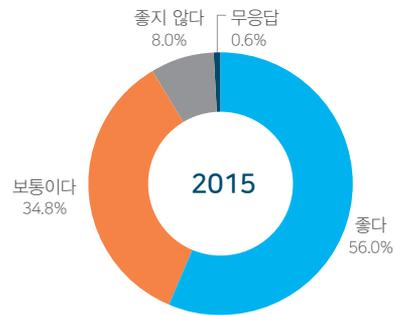
### 인간을 중시하는 교육,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로 작용

교수들의 자부심 요인은 주요 학과의 위상, 추구하는 이념 등으로 모아졌다. 대학의 브랜드 인지도와 관련해 많이 언급된 전공은 한의학 및 태권도이며, 경희대를 대표해 온 이들 전공이 대학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FGI에 참여한 교수E는 “우리 대학은 문화시민교육을 하는 대학으로서 굉장히 큰 위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으며, 교수는 “대학이 표방하고 있는 문화 세계의 창조 이념은 가치 있는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 역할을 해준다”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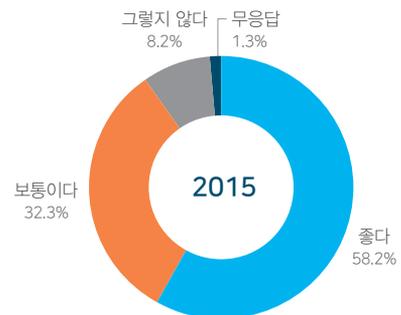
## Q. 경희대학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경희대학교 종합 평가	2023		2015	
	빈도	%	빈도	%
아주 좋다	395	7.6	403	4.1
좋다	2,802	53.7	5,200	52.5
그저 그렇다	1,549	29.7	3,450	34.8
좋지 않다	399	7.6	608	6
아주 좋지 않다	77	1.5	158	2
무응답	-	-	93	0.6
총계	5,222	100	9,912	100



## Q. 현재 경희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가?

경희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자부심	2023		2015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756	14.5	828	8.4
그렇다	2,560	49.0	4,939	49.8
보통이다	1,431	27.4	3,202	32.3
그렇지 않다	387	7.4	670	6.8
매우 그렇지 않다	88	1.7	140	1.4
무응답	-	-	133	1.3
총계	5,222	100	9,912	100



## 강점은 ‘교양교육’, 약점은 ‘동문의 사회진출’

구성원이 생각하는 현재 경희대의 강점은 ‘교양교육’, ‘전공교육’, ‘국제화’였다. 약점은 ‘동문의 사회진출’, ‘융복합 분야’, ‘사회적 실천’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2015년에 이어 ‘교양교육’이 강점으로, ‘동문의 사회진출’이 약점으로 꼽혔다. 향후 학교 운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항목이다.

### 현 경희대의 강점, 여전히 ‘교양교육’

현재 경희대학교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9.5%(1,543명)가 ‘교양교육’을 꼽아 2015년에 이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전공교육’ 25.1%(1,312명), ‘국제화’ 24.8%(1,295명) 순으로 강점을 꼽았다. ‘대학원 교육’(8.8%, 457명), ‘사회적 실천’(10.9%, 570명), ‘융복합 분야’(14.0%, 732명)를 선택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5년과 비슷한 결과다.

‘교양교육’이 강점으로 꼽힌 것은 후마니타스칼리지에 대한 대내외의 긍정적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양교육’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FGI에서도 나타난다. 교수E는 “우리 대학이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인문을 포함한 교양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과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응답하며 인문 교육과 시민교육의 가치를 높게 샀다. 학생G4 E는 “교양을 통해 자기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학의 강점이다”라며 직접 경험한 교양교육의 가치를 언급했다.

### 시설 노후, 인프라 부족 해결해야

한편 경희대학교의 약점을 묻는 질문에 ‘동문의 사회진출’이 23.0%(1,203명)로 2015년에 이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융복합 분야’가 20.8%(1,088명), ‘사회적 실천’이 20.2%(1,053명)로 그 뒤를 이었다.

FGI에서는 시설 노후와 인프라 부족이 많이 언급됐다. 교수B는 “경희대는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인색했고, 다양한 변화에 대해 능동적이고 빠르게 반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발전이 중요한 시점에서 동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공과대학에 다닌다는 학생G3 E는 “공대 연구실 공간이 너무 없다. 장비를 들여올 돈이 있는데도 공간이 없어 들여올 수가 없다. 공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학의 정책적 판단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Q. 경희대학교의 강점은 어떤 부문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경희대학교의 강점	2023		2015	
	빈도	%	빈도	%
교양교육	1,543	29.5	4,670	47.1
전공교육	1,312	25.1	1,060	10.7
국제화	1,295	24.8	1,338	13.5
동문의 사회진출	1,266	24.2	393	4.0
교수의 연구 역량	1,259	24.1	349	3.5
융복합 분야	732	14.0	799	8.1
사회적 실천	570	10.9	331	3.3
대학원 교육	457	8.8	137	1.4
기타	223	4.3	835	8.4
총계	8,657		9,912	

\*2015년 설문조사는 단일 응답으로 진행

**Q. 경희대학교의 약점은 어떤 부문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경희대학교의 약점	2023		2015	
	빈도	%	빈도	%
교양교육	603	11.5	835	8.4
전공교육	969	18.6	1,830	18.5
국제화	859	16.4	576	5.8
동문의 사회진출	1,203	23.0	1,928	19.4
교수의 연구 역량	824	15.8	652	6.6
융복합 분야	1,088	20.8	1,345	13.6
사회적 실천	1,053	20.2	953	9.6
대학원 교육	793	15.2	551	5.6
기타	717	13.7	1,242	12.5
총계	8,109		9,912	

\*2015년 설문조사는 단일 응답으로 진행



## 미래 경쟁력 분야 3위는 ‘응용과학’

경희 구성원은 경희의 현 경쟁력과 미래 경쟁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대학의 경쟁력은 전환의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향점과 무관하지 않다. 경희 구성원은 현재와 미래 모두 경희대학교의 가장 경쟁력 있는 전공분야로 ‘의학계열’을 꼽았다. 한편 ‘공학계열’, ‘응용과학’이라고 답한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 ‘인문학·교양’에서 경쟁력 찾는 구성원 줄었다

현재 경희대학교의 가장 경쟁력 있는 전공분야를 묻는 질문에 ‘의학계열’(53.1%, 2,775명)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절반 이상이 ‘의학계열’이라 답한 것이다. ‘공학계열’이 26.3%(1,375명)로 2위를 차지했고, ‘인문학’은 18.5%(966명)로 3위에 올랐다. 이어 ‘체육’(12.8%, 670명), ‘교양’(12.4%, 650명), ‘사회과학’(12.1%, 630명), ‘예술’(11.0%, 574명), ‘자연과학’(7.7%, 403명), ‘응용과학’(7.3%, 379명)이 뒤를 이었다.

같은 문항에 대한 2015년 조사 결과는 ‘의학계열’(24.6%, 2,440명), ‘인문학’(20.6%, 2,041명), ‘교양’(12.7%, 1,256명) 순이었다. ‘인문학’과 ‘교양’을 합하면 33.3%로 ‘의학계열’을 넘어섰다. 그러나 2023년에는 ‘인문학’과 ‘교양’을 택한 응답자가 눈에 띄게 줄었고, ‘의학계열’, ‘공학계열’을 택한 응답자가 크게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 경쟁력을 묻는 문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코로나19로 ‘응용과학’에 대한 대중적 인식 높아져

50년 후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경쟁력 있을 것 같은 전공분야 역시 ‘의학계열’(43.3%, 2,261명)로 나타났다. 이어 ‘공학계열’이 36.4%(1,901명), ‘응용과학’이 18.7%(977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문학’은 16.5%(862명), ‘교양’은 11.4%(594명)의 비율을 보였다. 2015년의 경우 ‘인문학’(20.4%, 2,022명), ‘공학계열’(15.9%, 1,572명), ‘의학계열’(14.5%, 1,441명), ‘교양’(11.3%, 1,118명) 등의 순이었다. 2015년 1위를 차지했던 ‘인문학’이 2023년에는 4위로 순위가 3계단 떨어졌고, 2015년 3위였던 ‘의학계열’이 2023년에는 1위에 올랐다.

주목할 만한 전공분야는 ‘응용과학’이다. 현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서 9위에 그친 ‘응용과학’이 미래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서는 3위를 차지한 것이다. 2015년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2015년 미래 경쟁력 분야 6위를 차지한 ‘응용과학’은 2023년 3계단 상승한 ‘3위’를 차지했다. ‘응용과학’에 대한 구성원의 기대가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기술의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응용과학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응용과학’ 분야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하는 구성원의 뜻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Q. 현재 경희대학교의 가장 경쟁력 있는 전공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현재 경희대의 가장 경쟁력 있는 전공분야	2023		2015	
	빈도	%	빈도	%
의학계열	2,775	53.1	2,440	24.6
공학계열	1,375	26.3	1,142	11.5
인문학	966	18.5	2,041	20.6
체육	670	12.8	501	5.1
교양	650	12.4	1,256	12.7
사회과학	630	12.1	893	9.0
예술	574	11.0	473	4.8
자연과학	403	7.7	295	3.0
응용과학	379	7.3	218	2.2
기타	120	2.3	653	4.7
총계	8,542		9,912	100

\*2015년 설문조사는 단일 응답으로 진행

**Q. 50년 후 경희대학교의 가장 경쟁력 있는 전공분야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50년 후 경희대의 가장 경쟁력 있을 전공분야	2023		2015	
	빈도	%	빈도	%
의학계열	2,261	43.3	1,441	14.5
공학계열	1,901	36.4	1,572	15.9
인문학	862	16.5	2,022	20.4
체육	346	6.6	280	2.8
교양	594	11.4	1,118	11.3
사회과학	541	10.4	882	8.9
예술	574	11.0	575	5.8
자연과학	592	11.3	565	5.7
응용과학	977	18.7	798	8.1
기타	82	1.6	659	6.7
총계	8,730		9,912	100

\*2015년 설문조사는 단일 응답으로 진행



## 50년 후, '창의적 문제해결력'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현재 경희대학교가 어떤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지 묻자 절반에 가까운 46.5%의 응답자가 '인문학적 소양'이라 답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의 성과로 해석된다. 50년 후에는 어떤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라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다.

### 현재 '인문학적 소양'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

현재 경희대가 인재 양성에서 주력하고 있는 능력은 '인문학적 소양'(46.5%, 2,428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민적 실천 능력'(31.9%, 1,666명)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인문학적 소양'과 '시민적 실천 능력'이 1, 2위를 차지한 것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이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수용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어 '융합 능력'(24.4%, 1,275명), '창의적 문제해결력'(18.8%, 984명), '합리적 사고력'(17.2%, 898명) 등이 뒤따랐다.

2015년 조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2015년 조사 때는 단일 응답으로 진행했기에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인문학적 소양'을 선택한 비율이 다소 줄고, '시민적 실천 능력'과 '융합능력'이라 응답한 비율이 늘었다. 이 역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과 떼어 놓고 해석하기 어렵다. 경희 구성원은 교양교육을 '인문학'에 한정짓지 않고 전공분야와의 융합이나 실천 영역까지 보다 넓은 범주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미래에는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능력' 필요해

50년 후 경희대가 인재 양성에서 주력하는 능력을 묻자 '창의적 문제해결력'(34.7%, 1,814명)과 '융합 능력'(31.3%, 1,632명)이 비슷한 수치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문학적 소양'(25.0%, 1,308명), '시민적 실천 능력'(22.8%, 1,191명), '합리적 사고력'(17.0%, 887명), '미래 예측 능력'(15.8%, 826명)이 뒤따랐다.

이 같은 결과는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인문학적 소양'보다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 능력'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학생들의 전망이 반영된 응답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경희대가 인재 양성에서 주력하는 능력을 묻는 질문에 6.0%(311명)의 지지를 얻은 '미래 예측 능력'이 50년 후 같은 질문에서는 15.8%로, 2배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이다. 미래에는 더 먼 미래를 예측하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문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Q. 현재 경희대학교는 어떤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는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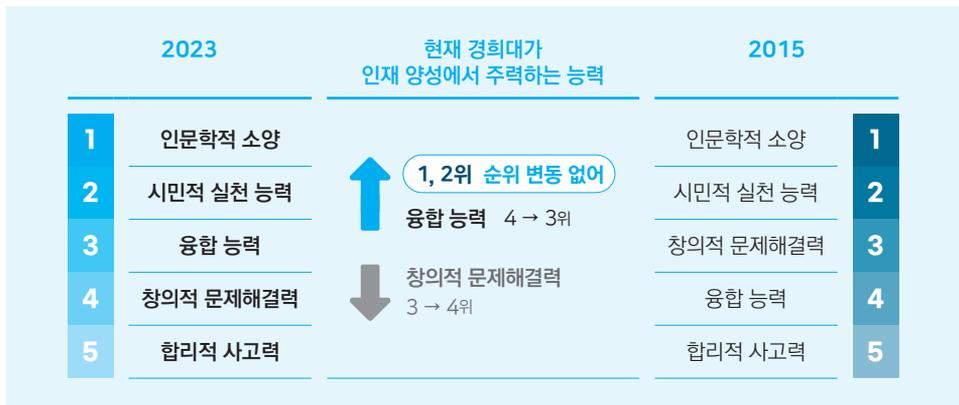
현재 경희대가 인재 양성에서 주력하는 능력	2023		2015	
	빈도	%	빈도	%
인문학적 소양	2,428	46.5	5,124	51.7
시민적 실천 능력	1,666	31.9	1,218	12.3
융합 능력	1,275	24.4	597	6.0
창의적 문제해결력	984	18.8	733	7.4
합리적 사고력	898	17.2	458	4.6
소통 능력	542	10.4	434	4.4
리더십	536	10.3	317	3.2
협동심	329	6.3	119	1.2
미래 예측 능력	311	6.0	109	1.1
기타	121	2.3	803	8.1
총계	9,090		9,912	100

\*2015년 설문조사는 단일 응답으로 진행

**Q. 50년 후 경희대학교는 어떤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50년 후 경희대가 인재 양성에서 주력할 능력	2023		2015	
	빈도	%	빈도	%
인문학적 소양	1,308	25.0	2,124	21.4
시민적 실천 능력	1,191	22.8	1,326	13.4
융합 능력	1,632	31.3	1,486	15.0
창의적 문제해결력	1,814	34.7	1,976	19.9
합리적 사고력	887	17.0	578	5.8
소통 능력	672	12.9	644	6.5
리더십	755	14.5	515	5.2
협동심	317	6.1	139	1.4
미래 예측 능력	826	15.8	426	4.3
기타	50	1.0	698	7.1
총계	9,452		9,912	100

\*2015년 설문조사는 단일 응답으로 진행



## 미래 경희의 핵심 가치는 '사고력 확장'

많은 응답자가 50년 후 경희대학교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사고력 확장'을 꼽았다.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래 대학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사고력 확장'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과 연결된다. 미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 또한 '학생의 사고력을 높여주는 뛰어난 질문자'였다.

### 2위는 '인간다움', 3위는 '전공지식 전수'

50년 후 경희대학교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사고력 확장'(35.2%, 1,837명)이 1위에 올랐다. '인간다움'(29.0%, 1,514명)이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전공지식 전수'(25.2%, 1,317명), '리더 양성'(24.0%, 1,251명), '사회공헌'(23.0%, 1,202명), '다양성'(22.2%, 1,157명), '주체성 함양'(21.9%, 1,145명), '진리 탐구'(21.2%, 1,108명)가 고루 표를 받았다. '경제적 가치'(12.4%, 647명), '관계 형성'(13.5%, 707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2015년 조사 당시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다움'(37.8%), '진리 탐구'(25.6%), '사고력 확장'(25.2%), '전공지식 전수'(23.9%), '다양성'(22.5%)이 차례대로 나타난 바 있다. 2015년과 비교해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사고력 확장'과 '인간다움'이다. 2023년 조사에서 '사고력 확장'은 2015년 대비 순위가 상대적으로 상승했으며 '인간다움'은 하락했다. 그런데도 '인간다움'은 전체 핵심 가치 중 2위를 차지해 여전히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 대학상,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해

50년 후 경희대학교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대체로 비슷한 답변을 보였으나, 그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학생(35.2%, 1,616명), 직원(37.3%, 131명)은 '사고력 확장'을 1위로 꼽았고, 교수는 '진리 탐구'(38.9%, 110명)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다.

학생과 직원의 응답에서는 '사고력 확장'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나 교수의 응답에서는 3위(31.8%, 90명)에 머물렀고, 반대로 교수의 응답에서 최상위를 기록한 '진리 탐구'는 학생의 응답에서 8위(19.9%, 912명), 직원의 응답에서는 5위(24.5%, 86명)를 기록했다. '사회공헌' 항목 또한 주목할 만하다. 교수(35.7%, 101명)와 직원(35.6%, 125명)에서 2위에 오른 '사회공헌'은 학생의 응답에서는 7위(21.3%, 976명)에 그쳤다. 대학상과 대학의 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Q. 50년 후 경희대학교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50년 후 경희대학교가 추구할 핵심 가치	전체		학생		교수		직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사고력 확장	1,837	35.2	1,616	35.2	90	31.8	131	37.7
인간다움	1,514	29.0	1,311	28.6	88	31.1	115	32.8
전공지식 전수	1,317	25.2	1,227	26.7	49	17.3	41	11.7
리더 양성	1,251	24.0	1,100	24.0	69	24.4	82	23.4
사회공헌	1,202	23.0	976	21.3	101	35.7	125	35.6
다양성	1,157	22.2	1,009	22.0	66	23.3	82	23.4
주체성 함양	1,145	21.9	1,052	22.9	29	10.2	64	18.2
진리 탐구	1,108	21.2	912	19.9	110	38.9	86	24.5
문명사회 모색	900	17.2	736	16.0	74	26.1	90	25.6
취업역량	778	14.9	726	15.8	17	6.0	35	10.0
자아 성찰	723	13.8	648	14.1	41	14.5	34	9.7
관계 형성	707	13.5	655	14.3	28	9.9	24	6.8
경제적 가치	647	12.4	584	12.7	22	7.8	41	11.7
기타	19	0.4	15	0.3	1	0.4	3	0.9
총계	14,286		12,567		785		953	

전체	학생	50년 후 경희대학교가 추구할 핵심 가치	교수	직원
사고력 확장	사고력 확장	<b>1위</b>	진리 탐구	사고력 확장
인간다움	인간다움	<b>2위</b>	사회공헌	사회공헌
전공지식 전수	전공지식 전수	<b>3위</b>	사고력 확장	인간다움

## 경희대, 세계시민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경희 구성원은 경희대가 세계시민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시민의 가치를 꾸준히 강조해 온 경희 교육이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실질적인 사회 기여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현재 대학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해 경희대학교는 대체로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세계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책무’는 경희 정체성 중 하나, 실효성은 과제로 남아

경희대학교가 세계시민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구성원 전체의 51.3%(2,677명)가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FGI 참여자들은 경희대학교의 정체성 내지 특색으로 세계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책무, 기여를 꼽았다.

교수C는 “경희대의 세계평화나 및 기후 관련 연구 역량이 세계 10위 대학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희대가 그만큼 해당 분야의 강점을 충분히 갖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경희의 노력과 성과를 언급했다. 직원은 “대학교육과 역할을 평가할 때 인류, 문명, 기후 변화 등을 핵심 가치로 등장시키는 모습은 다른 대학에서는 보기 어려운 강점이다”라고 말했다. 경희대학교가 세계시민사회에 기여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상징성에 걸맞은 효과를 거두고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과제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수H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은 우리 학교의 전통인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 수준까지 공감되기에는 학교의 리더 그룹과 기층에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라며 대학에서 강조하는 가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구성원의 노력이 과제로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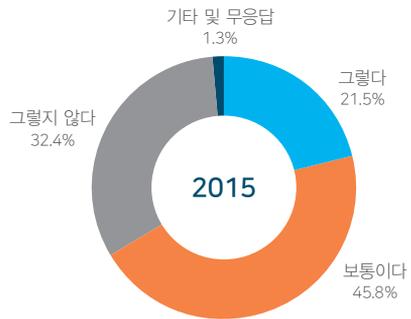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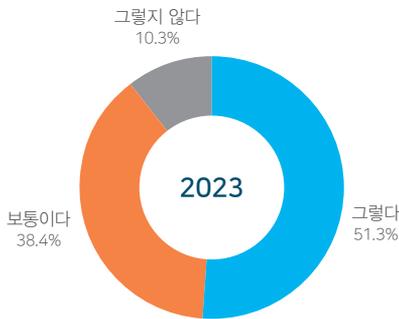
### “사회 변화에 대처한다는 것은 세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

대학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에 경희대학교가 어느 정도로 대처하고 있는지 물었다. 대체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38.7%(2,023명)로 2015년의 28.4%(2,821명)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모든 구성원의 응답에서 ‘보통이다’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교수H는 “사회 변화에 대처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은 잘하고 있다”라며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대처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학생G3D는 챗GPT가 나온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당시 학교 차원에서 강의나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경희대학교가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직원G는 “대학이 빠르게 대응하고 변화하기 위해 좀 더 간결화된 체계와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 수행을 맡을 조직 구조를 효율적인 형태로 갖추는 일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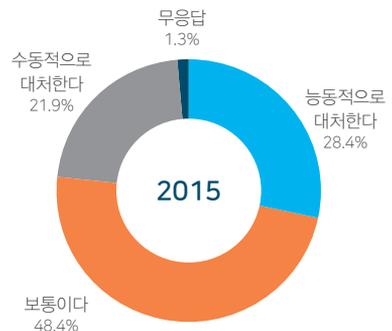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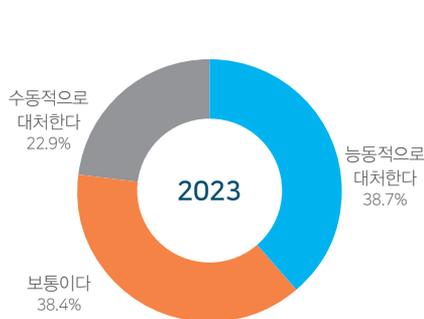
**Q. 경희대학교가 세계시민사회(2015년 조사에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가?**

경희대의 세계시민사회 기여 정도	2023		2015	
	빈도	%	빈도	%
그렇다	2,677	51.3	2,140	21.5
보통이다	2,005	38.4	4,539	45.8
그렇지 않다	540	10.3	3,110	32.4
기타 및 무응답	-	-	123	1.3
총계	5,222	100	9,912	101



**Q. 경희대학교가 대학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는가?**

경희대의 대학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 대처 정도	2023		2015	
	빈도	%	빈도	%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2,023	38.7	2,821	28.4
보통이다	2,003	38.4	4,793	48.4
수동적으로 대처한다	1,196	22.9	2,168	21.9
무응답	-	-	130	1.3
총계	5,222	100	9,912	100



## 코로나19 대응, ‘빠른 비대면화’ 우수, ‘등록금 대처’ 미흡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희대학교가 가장 잘 대응한 부분에 대해 전 구성원은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시스템/플랫폼 빠르게 구축’을 언급했다. 가장 미흡하게 대응한 부분은 ‘등록금 감면/장학금 확충 요구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나타났다.

###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대처는 다 했다”

팬데믹 기간 경희대학교가 가장 잘 대응한 것을 묻자 모든 구성원의 응답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키워드는 ‘빠른 비대면화’였다. ‘절대평가 방식 도입’, ‘확진자 관리와 코로나19/질병 확산 차단’ 등이 주요 의견으로 나타났다. FGI에서 교수E는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를 대상으로 줌 교육을 실시하며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했다. 모든 교수가 콘텐츠를 공개하면서 대학 교육이 크게 변화했다”라며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학생G1 B는 “비대면 수업을 위해 장비와 줌 시스템 등에 충분한 투입을 했고, 절대평가를 채택하는 등 빠르게 대처했다”라고 언급했다. 학생G2 H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대처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방역하시는 분들이 실험실과 연구실을 주기적으로 소독해 줬고, 학생들도 위생 수칙을 잘 지켰다”라며 구성원들의 노력도 뒷받침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해 노력했어야

팬데믹 기간 경희대가 가장 미흡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 ‘등록금’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는 교육의 질과도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G4 F는 “e-캠퍼스가 나오기 전 교수님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고 비대면 수업의 퀄리티가 대면 수업만 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직원E는 ‘등록금’ 관련 이슈가 비대면 강의 기간을 활용한 수업 환경 개선 미비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대학은 공사를 하는 등 수업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학교 출입을 통제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앞으로 수업은 온·오프라인 혼합 형태가 될 것”

FGI 결과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것은 앞으로의 수업 형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수업과 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실시됐다. 학생의 응답에서는 ‘절대평가’가 ‘잘한 대응’으로 꼽혔으나 이는 교수의 시각과 차이를 보인다. 교수E는 “시험의 변별력이 없어졌다. 우수한 성적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성적 관련 항의가 많아졌다”라며 절대평가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외에도 건물 통제에 유연성이 없었다는 점, 사무실에 출근해 회의만 화상으로 하는 업무의 비효율성,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이 늦어진 점 등이 미흡했던 점으로 언급됐다.



## 경희대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은 ‘소통 능력’

현재 경희대학교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은 무엇인가.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소통 능력’이라 답했다. 50년 후 경희대학교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으로는 ‘미래 비전’이 꼽혔다.

### 2위는 미래 비전, 3위는 경영 능력

경희 구성원에게 현재 경희대학교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소통 능력’(31.4%, 1,639명)이 1위로 꼽혔다. 2위는 ‘미래 비전’(22.2%, 1,161명), 3위는 ‘경영 능력’(14.3%, 745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철학’(13.3%, 696명), ‘공정성’(9.4%, 490명), ‘강한 리더십’(6.7%, 348명), ‘전문지식’(1.5%, 80명) 순으로 뒤따랐다.

2015년 조사 당시 같은 문항에서 ‘소통 능력’과 ‘공정성’은 보기에 없었다. 따라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2015년 조사 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교육철학’(33.6%, 3,327명)은 2023년 3위로 밀려났고, ‘경영 능력’이 ‘교육철학’을 앞질렀다.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경영 능력이 뛰어난 총장상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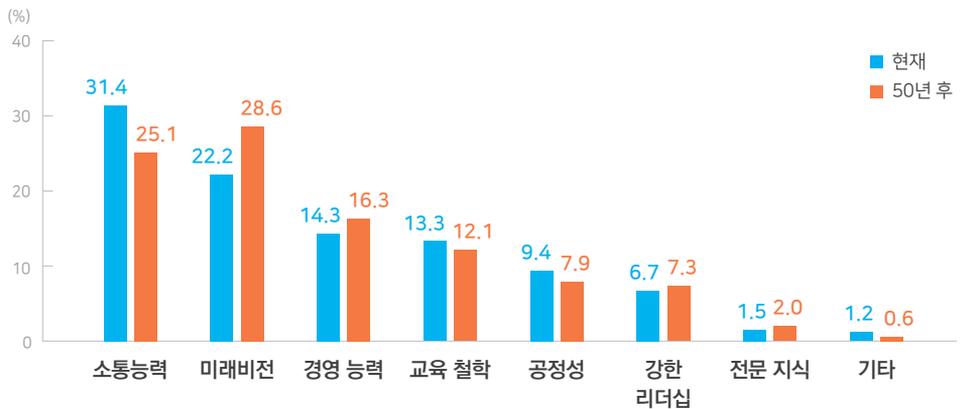
### 50년 후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 ‘미래 비전’

50년 후에 총장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는 ‘미래 비전’이 28.6%(1,496명)로 1위를 차지했다. ‘소통 능력’(25.1%, 1,313명), ‘경영 능력’(16.3%, 853명), ‘교육철학’(12.1%, 631명)이 뒤를 이었다. 현재와 50년 후 경희대학교 총장에게 가장 필요한 상위 덕목은 ‘소통 능력’, ‘미래 비전’, ‘경영 능력’으로 비슷하다.

50년이 지난 후에도 상위 필수 덕목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총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어도 대학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쉽게 변하지 않는 가치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FG에서는 상기 ‘소통 능력’과 ‘미래 비전’ 외에도 ‘빠른 의사결정’, ‘리스크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용기’, ‘공감 능력’ 등이 언급됐다.

**Q. 경희대학교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은 무엇인가? 50년 후 경희대학교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경희대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	현재		50년 후	
	빈도	%	빈도	%
소통 능력	1,639	31.4	1,313	25.1
미래 비전	1,161	22.2	1,496	28.6
경영 능력	745	14.3	853	16.3
교육철학	696	13.3	631	12.1
공정성	490	9.4	411	7.9
강한 리더십	348	6.7	380	7.3
전문지식	80	1.5	106	2.0
기타	63	1.2	32	0.6
총계	5,222	100	5,222	100



경희대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	2015년 조사		현재		50년 후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철학	3,327	33.6	3,569	36.0	3,569	36.0
미래 비전	2,902	29.3	3,316	33.5	3,316	33.5
경영 능력	1,866	18.8	1,124	11.3	1,124	11.3
리더십	606	6.1	845	8.5	845	8.5
전문지식	514	5.2	466	4.7	466	4.7
기타 및 무응답	697	7.0	592	5.9	592	5.9
총계	9,912	100	9,912	100	9,912	100

\*참고: 2015년 설문조사 같은 문항 결과

## 전환의 시대, '재정확보 및 경영' 능력 갖춘 총장 기대

전환의 시대를 이끌어 갈 경희대학교 총장에게 기대하는 능력은 '재정확보 및 경영'으로 나타났다. 경희대학교 총장에게 제안하는 이상적인 리더십 롤모델은 '세종대왕'이 꼽혔다.

### '재정확보 및 경영', '구성원과 공감대 형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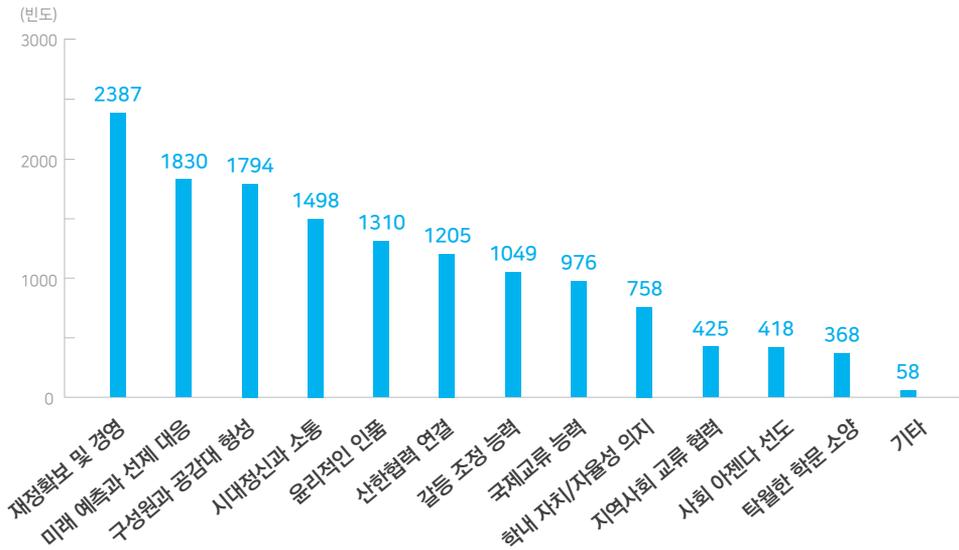
전환의 시대를 이끌어 갈 경희대 총장에게 기대하는 능력으로 모든 구성원이 '재정확보 및 경영'(45.7%, 2,387명)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미래 예측과 선제 대응'(35.0%, 1,830명), '구성원과 공감대 형성'(34.4%, 1,794명), '시대정신과 소통'(28.7%, 1,498명), '윤리적인 인품'(25.1%, 1,310명), '산학협력 연결'(23.1%, 1,205명)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대체로 상위 항목에 고른 기대를 보인 것과 달리, '재정확보 및 경영'(63.9%, 405명)과 '구성원과 공감대 형성'(57.6%, 365명) 능력에 대한 교수와 직원의 기대가 눈에 띄게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수B는 "결국 재정이 중요하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며 재정확보와 경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학생들은 '산학협력 연결'에 대한 요구가 24.4%(1,119명)로 높았으며, 이는 현재의 수학과 진로의 연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교수 및 직원의 응답에서 '갈등 조정 능력'(27.1%, 172명)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FGI에서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 좋은 교수와 직원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Q. 전환의 시대를 이끌어 갈 경희대학교 총장에게 기대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전환의 시대를 이끌어 갈 경희대 총장에게 기대하는 능력	전체		학생		교수		직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재정확보 및 경영	2,387	45.7	1,982	43.2	193	68.2	212	60.4
미래 예측과 선제 대응	1,830	35.0	1,581	34.5	113	39.9	136	38.7
구성원과 공감대 형성	1,794	34.4	1,429	31.1	172	60.8	193	55.0
시대정신과 소통	1,498	28.7	1,363	29.7	49	17.3	86	24.5
윤리적인 인품	1,310	25.1	1,190	25.9	33	11.7	87	24.8
산학협력 연결	1,205	23.1	1,119	24.4	47	16.6	39	11.1
갈등 조정 능력	1,049	20.1	877	19.1	76	26.9	96	27.4
국제교류 능력	976	18.7	917	20.0	14	4.9	45	12.8
학내 자치/자율성 의지	758	14.5	688	15.0	41	14.5	29	8.3
지역사회 교류 협력	425	8.1	389	8.5	7	2.5	29	8.3
사회 아젠다 선도	418	8.0	375	8.2	21	7.4	22	6.3
탁월한 학문 소양	368	7.0	348	7.6	9	3.2	11	3.1
기타	58	1.1	52	1.1	5	2.0	1	0.3
총계	14,018		12,310		780		986	



이상적인 리더십 롤모델은 '세종대왕'

이상적인 리더십 롤모델을 묻자 매우 다양한 인물이 등장했다. 경희 구성원에게 가장 많이 추천된 인물은 '세종대왕'이었다. 학생G1 D은 "세종대왕은 성군이기도 하고 앞서 '경연'이라는 제도를 통해 항상 토론을 했다. 경희대학교 총장도 세종대왕의 이런 점을 본받으면 좋지 않을까 한다"라고 응답하며, 총장이 갖춰야 할 덕목인 '소통'에 초점을 맞춰 세종대왕을 롤모델로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FGI 참여자의 다른 응답에서도 '소통'과 '추진력', '미래를 선도하는 능력' 등이 많이 언급됐다.

직원D는 이상적인 리더십 롤모델로 경희학원 설립자를 꼽았다. 그는 "처음 입사해서 봤던 조감도가 기억난다. 흑백 마스터 플랜을 만들 당시 이사장께서는 교육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하나씩 실현해 나갔다. 실현 과정에서 보였던 강한 추진력을 본받아 큰 그림을 갖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총장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다"라며 장기적 계획과 추진력을 롤모델의 요건으로 내세웠다.

정치지도자

- 노무현 361회
- 박정희 135회
- 반기문 127회
- 문재인 106회
- 김대중 100회
- 버락 오바마 79회
- 이명박 32회

교육자

- 이광형 21회

기타 유명인

- 유재석 70회

Q. 전환의 시대, 경희대학교 총장에게 이상적인 리더십 롤모델을 제안한다면?  
(누구든 자유롭게 구상하고 자유롭게 기재)

### 역사적인 위인

세종대왕	971회
이순신	327회
김구	150회
안중근	81회
정조	47회
유관순	36회
링컨	27회

### 종교지도자

김수환 36회

### 경영인

이건희	470회
정주영	271회
일론 머스크	94회
스티브 잡스	81회
이재용	76회
빌 게이츠	26회

## 경희 리더 그룹에게 중요한 가치는 ‘인문성을 갖춘 지성인 양성’

경희 구성원은 현재 경희대학교 리더 그룹이 ‘인문성을 갖춘 지성인 양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평가했다. 경희대학교 리더 그룹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로는 ‘대학재정 확보 및 운영의 탁월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 ‘지성을 갖춘 전문인 양성’, ‘사회 정의에 기여’도 중요해

경희대학교 리더 그룹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인문성을 갖춘 지성인 양성’(5.52점)이 7점 평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다음으로는 ‘지성을 갖춘 전문인 양성’(5.36점), ‘사회 정의에 기여’(5.20점), ‘창의적 문화 창조에 기여’(4.97점), ‘시민사회 아젠다 발굴 및 실천’(4.95점), ‘대학재정 확보 및 운영의 탁월성’(4.92점), ‘경희대 조직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4.90점), ‘경희대 조직 내부 공동체 구현’(4.84점), ‘창학정신 계승’(4.77점)이 뒤를 이었다.

모든 구성원이 ‘인문성을 갖춘 지성인 양성’과 ‘지성을 갖춘 전문인 양성’을 1, 2위로 꼽아 경희대학교 리더 그룹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부생의 경우 ‘인문성을 갖춘 지성인 양성’(5.64점)을 리더 그룹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교수(5.12점)와 직원(5.18점)은 ‘지성을 갖춘 전문인 양성’을 꼽았다.

### ‘대학재정 확보 및 운영의 탁월성’, 리더 그룹이 중요하게 여겨야

전환의 시대, 학교와 구성원의 발전을 위해 리더 그룹이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결과 ‘대학재정 확보 및 운영의 탁월성’(5.95점)의 7점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지성을 갖춘 전문인 양성’(5.88점), ‘경희대 조직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5.83점), ‘인문성을 갖춘 지성인 양성’(5.80점), ‘경희대 조직 내부 공동체 구현’(5.80점) 등이 뒤따랐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의 책무와 함께 조직 내부 및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구성원의 인식을 보여 준다. 사회에서 대학이 지니는 역할에 관한 인식은 ‘사회 정의에 기여’와 ‘시민사회 아젠다 발굴 및 실천’ 항목에서 엿볼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해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7점 평균 점수가 높은 반면 교수 및 직원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두 집단 간 시각 차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교수회는 “우리의 성장에 비해 한국 대학의 인프라는 책 한 권만 있으면 되던 시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타개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학생G1 A는 “다른 대학은 학교와 기업이 연계돼 인턴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학도 이런 기회 요인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며 조직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Q. 경희대학교 리더 그룹은 다음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경희대 리더 그룹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전체 (7점 평균)	학부생 (7점 평균)	대학원생 (7점 평균)	교수 (7점 평균)	직원 (7점 평균)
창학정신 계승	4.77	4.72	4.82	4.84	4.95
지성을 갖춘 전문인 양성	5.36	5.37	5.45	5.12	5.18
인문성을 갖춘 지성인 양성	5.52	5.64	5.45	5.05	5.16
사회 정의에 기여	5.20	5.27	5.21	4.80	4.93
대학재정 확보 및 운영의 탁월성	4.92	4.81	5.20	4.69	4.89
시민사회 아젠다 발굴 및 실천	4.95	5.02	4.98	4.39	4.72
경희대 조직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	4.90	4.88	5.14	4.39	4.61
경희대 조직 내부 공동체 구현	4.84	4.85	5.04	4.25	4.40
창의적 문화 창조에 기여	4.97	4.98	5.15	4.41	4.62

경희대 리더 그룹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전체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인문성을 갖춘 지성인 양성	<b>1위</b>	1위	1위	1위	1위
지성을 갖춘 전문인 양성	<b>2위</b>	2위	2위	2위	2위
사회 정의에 기여	<b>3위</b>	3위	3위	-	-
창학정신 계승	-	-	-	3위	3위

**Q. 전환의 시대, 학교와 구성원의 발전을 위해 경희대학교 리더 그룹은 다음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경희대 리더 그룹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	전체 (7점 평균)	학부생 (7점 평균)	대학원생 (7점 평균)	교수 (7점 평균)	직원 (7점 평균)
창학정신 계승	5.19	5.16	5.29	4.80	5.32
지성을 갖춘 전문인 양성	5.88	5.91	5.86	5.77	5.79
인문성을 갖춘 지성인 양성	5.80	5.83	5.80	5.45	5.78
사회 정의에 기여	5.70	5.72	5.72	5.51	5.62
대학재정 확보 및 운영의 탁월성	5.95	5.96	5.85	6.13	6.14
시민사회 아젠다 발굴 및 실천	5.44	5.47	5.47	5.09	5.32
경희대 조직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	5.83	5.87	5.80	5.59	5.83
경희대 조직 내부 공동체 구현	5.80	5.83	5.73	5.72	5.85
창의적 문화 창조에 기여	5.67	5.69	5.73	5.25	5.58

경희대 리더 그룹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전체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대학재정 확보 및 운영의 탁월성	<b>1위</b>	1위	2위	1위	1위
지성을 갖춘 전문인 양성	<b>2위</b>	2위	1위	2위	-
경희대 조직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	<b>3위</b>	3위	-	-	3위
경희대 조직 내부 공동체 구현	-	-	-	3위	2위
인문성을 갖춘 지성인 양성 / 경희대 조직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	-	-	3위	-	-

## 50년 후 경희대는 세계 118위, ‘노벨평화상’ 기대

경희대학교의 미래를 상상해 보았다. 경희 구성원은 50년 후 경희대학교의 세계 대학 순위를 약 118위로 예상했다. 50년 안에 경희대학교 구성원/졸업생이 노벨상을 받는다면 ‘노벨평화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에 해외 캠퍼스가 세워진다면 어느 지역이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구성원이 ‘아시아’라 답했다.

### 대학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적 위상 변화할 것

50년 후 경희대학교의 세계 대학 순위를 물었다. 그 결과 133위라고 응답했던 2015년에 비해 15단계 상승한 118위로 조사됐다. 모든 구성원이 세계 대학 순위의 상승을 예상했으며, 대학원생의 기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FGI 참여자들은 경희대학교의 세계적 위상 변화와 관련해 교육 지형의 변화, 대학 수 감소, 대학의 글로벌화 등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교수J는 “50년 후 대학이 많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전공이 다양한 경희대학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했으며, 학생G1 C 또한 “경희대학교는 학과가 다양하기도 하고 상징적인 가치나 학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치를 유지하면서 점점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직원G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전망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50년 후의 세계 대학 순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대의 이면에는 대학 수 감소라는 외적 환경의 변화가 있다. 전반적으로 경희대학교의 세계 대학 순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그것이 대학의 수 감소에 따른 상대적인 위치 변화일 것이라는 응답이 많다는 것에 주목하며, 글로벌화 과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23.2%, ‘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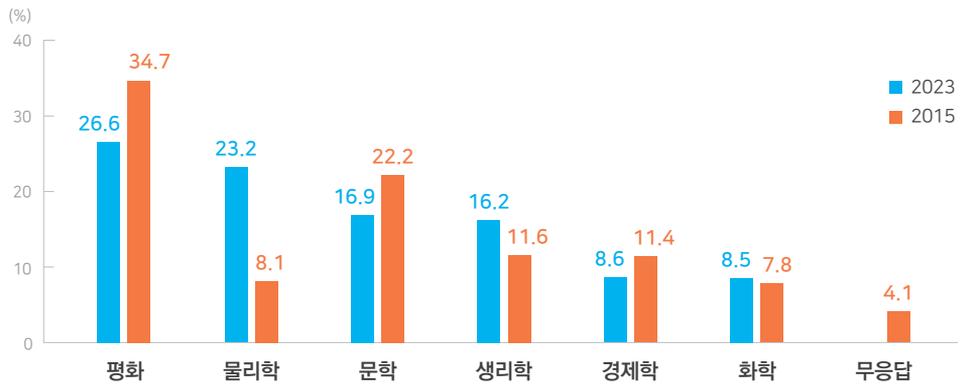
50년 안에 경희대학교 구성원/졸업생이 노벨상을 받을 최초의 분야는 ‘평화’(26.6%, 1,390명), ‘물리학’(23.2%, 1,209명), ‘문학’(16.9%, 88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 분야 순위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물리학’이다. ‘물리학’은 2015년 조사 당시 8.1%(799명)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2023년의 조사에서는 23.2%(1,209명)의 응답률로 기대 분야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이는 경희대학교의 가장 경쟁력 있는 학문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 이공계열이 우세했던 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평화’라는 응답이 2015년의 조사에 이어 가장 높았다는 점은 경희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계시민사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 기여로 계속되기를 바라는 기대로 해석된다.

**Q. 50년 후 경희대학교의 세계 대학 순위는 몇 위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구분	전체	학생	교수	직원	2015
50년 후 경희대의 세계 대학 순위	118.3위	116.9위	143.7위	117.1위	132.6위

**Q. 앞으로 50년 안에 경희대학교 구성원 또는 졸업생이 노벨상을 받는다면 어느 분야가 최초가 되겠는가?**

50년 안에 경희인이 노벨상 받을 최초의 분야	2023		2015	
	빈도	%	빈도	%
평화	1,390	26.6	3,443	34.7
물리학	1,209	23.2	799	8.1
문학	881	16.9	2,200	22.2
생리학	846	16.2	1,153	11.6
경제학	450	8.6	1,132	11.4
화학	446	8.5	776	7.8
무응답	-	-	409	4.1
총계	5,222	100	9,9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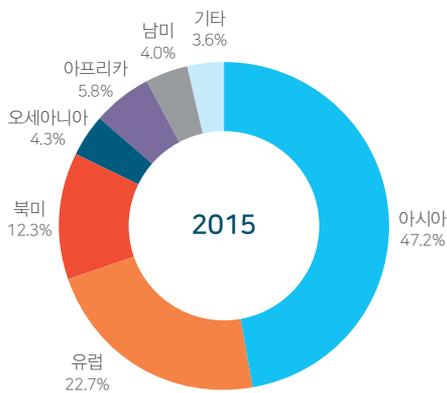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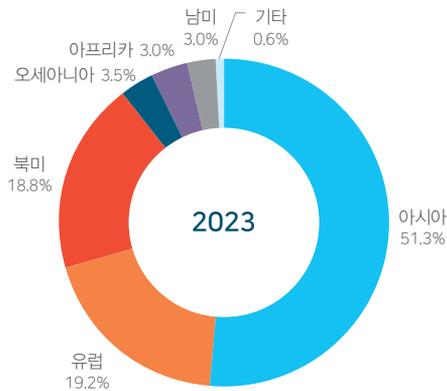
### 해외 캠퍼스가 세워진다면 '아시아'

50년 안에 경희대학교의 해외 캠퍼스가 세워질 최초의 지역으로 '아시아'가 51.3%(2,678명)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모든 응답자가 50년 안에 경희대학교의 해외 캠퍼스가 세워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아시아'로 예상했다.

다음으로 '유럽'(19.2%, 1,004명), '북미'(18.8%, 984명), '오세아니아'(3.5%, 184명), '아프리카'(3.4%, 179명), '남미'(3.0%, 156명)가 뒤를 이었다. FGI 참여자를 대상으로 50년 후 대학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 많은 대학이 사라질 것이며 존재하는 대학의 모습도 현재와 같은 형태는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비대면 활동 위주의 온라인 캠퍼스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던 바 해외에 세워질 캠퍼스가 어떤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풀어 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Q. 앞으로 50년 안에 경희대학교의 해외 캠퍼스가 세워진다면 어느 지역에 최초로 세워지겠는가?**

50년 안에 경희대 해외 캠퍼스가 세워질 지역	2023		2015	
	빈도	%	빈도	%
아시아	2,678	51.3	4,682	47.2
유럽	1,004	19.2	2,252	22.7
북미	984	18.8	1,223	12.3
오세아니아	184	3.5	427	4.3
아프리카	179	3.4	577	5.8
남미	156	3.0	392	4.0
기타	37	0.6	359	3.6
총계	5,222	100	9,912	100



## 경희대학교 후배들이여, ‘화이팅!’ ‘자부심’을 갖고 ‘전진하라’

50년 후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핵심 키워드는 ‘화이팅’이었다.

###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말 것”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일 후배들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은 ‘화이팅’이었다. ‘자부심’, ‘전진하라’, ‘꿈’, ‘미래’, ‘최선’ 등의 키워드도 많이 언급됐다. 이는 경희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꿈과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인간다움’, ‘세계시민’ 등의 언급도 눈에 띈다. 경희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하며 그것이 후배들의 주체적인 삶에도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

3부 전환의 시대,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역할





대학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뀐다

## 전환의 시대, '대학다운 미래 대학'의 역할

# 대학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뀐다

현재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라는 두 가지 재난이 지배하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자본주의 경제는 물론이고 교육, 정치, 문화 등 근대 문명의 모든 성취를 위기에 빠뜨림으로써 새로운 문명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기 이전, 이 시기에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기술'의 특이점이 아니라 '기후'의 특이점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로 요약되는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경희 구성원의 의식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총 5,264명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희 구성원의 의식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미래리포트 2015>의 질문들을 준용했고,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문항을 일부 첨가했다. 이를 통해서 2015년과 2023년, 약 8년 동안 경희 구성원의 의식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를 살필 수 있었다.

이번 조사는 1. '나'의 현재와 미래, 2.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 3. 인류의 현재와 미래, 4. 대학과 고등교육, 5. 경희의 현재와 미래라는 다섯 개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50년 후 중요한 가치는 '건강', 코로나 팬데믹 영향 드러나

<나'의 현재와 미래> 항목에서는 2015년 조사 결과와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경희 구성원은 '행복'을 현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건강'을 미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행복'을 꼽았던 2015년 조사 결과와 달라진 점이다. 특히 2015년 조사와 달리 '경제력'이 '사랑'이나 '여유'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건강'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전히 학교 교육이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

---

러났는데, 반대로 ‘미디어’의 영향은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미디어’의 영향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경희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소통 대신 미디어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했다. 타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재난을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행위로 인식됐고, 그 빈틈을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배달 음식 등이 대신했다. 경희 구성원의 상당수는 직접적인 대면보다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거나 익숙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재학생 대부분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세대로서 사실상 학교에서 타인과 직접적인 대면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거의 없다. 상당수는 대학 입학 후에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관계 맺기의 능력을 길러주는 방식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

### ‘저출산, 고령화, 젠더 갈등’ 극복 방안 모색해야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 항목에서도 2015년 조사 결과와 확연하게 달라진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2015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향후 50년 이내에 남북통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통일에 대해 관심을 표시한 사람은 드물었다.

2015년 조사와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난 부분은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서였다. 2015년에 경희 구성원은 대다수는 ‘빈부격차’를 가장 중요한 갈등이라고 대답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출산을 저하’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출산을 저하’는 ‘고령화’와 연속적 관계에서 인식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 가운데 하나는 경희 구성원이 대체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덜 행복한 국가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50년 후의 한국이 현재보다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한 사회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동시에 그것이 곧 개인이나 전체 사회의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나 기술의 발달만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학생들은 ‘젠더 갈등’을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꼽았다. 현대 인류 공통의 관심사인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사람은 예상보다 적었다.

따라서 미래의 대학 교육은 저출산, 고령화, 젠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적인 위협보다 가볍게 인식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후 위기’ 해결 위한 ‘전 지구적 연대’, 현실화 위해 노력해야

〈인류의 현재와 미래〉 항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환경문제’라는 답변이 적었으나 인류가

직면한 난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5년에는 ‘국가 간 부의 양극화’가 인류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했으나 8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경희 구성원은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경희 구성원은 이러한 인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의 건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와 달리 ‘테러와 전쟁’의 위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사회의 출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특정 국가의 이익을 앞세운 전쟁 발발의 가능성 등을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요약하면, 경희 구성원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대학은 이 해결책과 그것의 현실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경희 구성원의 상당수가 미래에 존경받는 인물유형으로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나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선택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희 구성원은 현실의 무게감으로 인해 희망적인 미래를 손쉽게 전망할 수는 없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존경하고 있다. 미래 대학의 교육은 이러한 인물을 배출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 변화 한가운데 놓인 대학, 미래 대학은 ‘사고력 확장’이 핵심

〈대학과 고등교육〉 항목은 대학(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이다. 경희 구성원에게 대학 교육은 ‘취업’과 ‘학벌’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학들은 ‘취업역량 제고’와 ‘전공지식 전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한 질문에서는 약간 모순적인 답변도 존재했다. 가령 국내의 대학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2015년 조사 결과에 비해 조금 상승했지만, 동시에 대학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목소리의 비율도 높아졌다. 또한 경희 구성원은 현재 대학이 ‘전공지식 전수’를 통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래의 대학은 ‘사고력 확장’, ‘인간다움 추구’, ‘다양한 추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대학에 대한 인식에서는 ‘취업역량 제고’가 최상위를 차지했으나 미래의 대학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실상 최하위에 가까운 순위를 기록한 것에서도 동일하게 목격된다.

경희 구성원의 인식 속에서 대학은 ‘취업역량 제고’가 중요한 곳에서 ‘사고력 확장’이 중요한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신입생을 선발하고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경희 구성원은 미래의 대학은 ‘인생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선호하며, 학업성취도 평가 또한 경쟁을 배제한 절대평가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경희 구성원의 인식 속에서 대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표상은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전환의 시대에 '대학' 자체가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대학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 경희 구성원이 '뛰어난 질문자'를 가장 훌륭한 교수로 생각하고 있고, 미래 대학의 가치를 '취업'이나 '전공지식'이 아니라 '사고력 확장'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구성원 만족도 상승, 여전히 강점은 '교양교육', 약점은 '동문의 사회진출'

〈경희의 현재와 미래〉 항목에서도 꽤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전환의 시대가 대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8년 동안 경희 구성원의 대학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경희대학교에 대한 경희 구성원의 만족도는 2015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경희 구성원은 경희대학교의 강점은 '교양교육', 약점은 '동문의 사회진출'이라고 답변했다. 이것은 2015년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교양교육'이라는 답변의 비율은 큰폭으로 하락했다. 이것은 50년 후 경희대학교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를 묻는 질문에서 '사고력 확장'이 '인간다움'을 앞선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같은 질문에 대해 2015년에는 '인간다움'이 '사고력 확장'에 크게 앞섰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인간다움'의 가치 하락과 '교양교육'의 영향력 감소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듯하다.

경희대학교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으로는 '소통 능력'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전환의 시대를 이끌어 갈 총장에게 기대하는 능력으로는 '재정확보 및 경영'이 꼽혔다. 경희 구성원들은 전환의 시대에 대학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경희대학교 리더 그룹이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가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학재정 확보 및 운영의 타월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전환의 시대는 대학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한 교육과 연구는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관계 맺기의 능력을 길러주는 새로운 교육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한국 및 인류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항목에서 확인되듯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는 특정한 분과학문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출산율의 저하라는 문제가 대학을 둘러싸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류 공동의 문제를 위해 분과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학문, 새로운 교육 방법의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학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뀐다

---

대학에 대한 경희 구성원의 의식 속에는 이미 이러한 통섭적, 횡단적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 경희 구성원이 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갈 총장, 그리고 경희 리더 그룹에게 요구하는 덕목인 '소통 능력'과 '대학재정 확보 및 운영의 탁월성' 또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밀고 나가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정신적 기반을 지적한 것일 터이다.

대학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이다. 대학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뀐다.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2023은 경희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추진력이 되어야 한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경희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국가, 기업, 종교, 시민사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학술과 실천의 산실로서 미래 대학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구적 차원의 집단지성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록1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2023  
정량 조사 설문지

부록2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2023  
정성 조사 질문지

[부록1]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2023 정량 조사 설문지

“전환의 시대,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

##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나’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대학과 고등교육, 한국 사회와 인류 문명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가 여러분의 성찰과 상상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답변이 여러분 자신의 미래는 물론  
대학과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input type="checkbox"/> 학생	소 속	대학
	학부(과)	학부(과)
	학 년	학년
	성 별	① 남    ② 여

<input type="checkbox"/> 교수 <input type="checkbox"/> 직원	
성 별	① 남    ② 여
나 이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발간위원회

## “전환의 시대,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

경희대학교가 구성원의 꿈과 희망을 수렴해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집단지성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경희는 2014년 개교 65주년, '경희 100년 미래메시지' 50주년을 맞아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경희 100년 미래메시지는 경희가 1964년 개교 15주년을 기념해 당시 구성원의 뜻을 모아 작성, 후학에게 남긴 것으로, 메시지의 골자는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적인 명문으로 성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뒤, 초창기 경희의 염원을 다시 현재화, 미래화한 것이 미래리포트입니다. 경희는 미래리포트를 통해 대학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더 나은 대학 건설을 위한 핵심 요건을 모색했습니다.

2023년 경희대학교는 다시 한번 경희의 역사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경희의 미래비전을 대내외로 확산, 공유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를 재추진합니다. 문명사적 격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인류는 기후 위기, 생태·환경 붕괴, 불평등과 양극화, 신종 감염병 등 지구적 난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앞당긴 뉴 노멀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챗GPT'는 대학의 존재 이유와 교육의 미래에 대해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미래리포트는 미래 대학이 존재해야 하는 근본 이유에서부터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인류사회가 추구해야 할 보편가치를 지구적 맥락에서 재정하고자 합니다. 집단지성이 집단실천으로 이어질 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경희의 미래 구상은 대학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는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등 다양한 조사 방식을 통해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국내외 대학 및 경희의 현주소와 지향점, 나아가 한국 사회와 인류 문명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합니다. 미래리포트에 참여하면서 저마다 학술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스스로를 발명하고 더 나은 문명 건설에 기여하는 지구적 실천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꿈은 함께 꿀 때 더 크게, 더 빨리 이뤄집니다. 나를 넘어서는 나, 경희를 넘어서는 경희, 대학을 넘어서는 대학, 문명을 넘어서는 문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찰과 상상은 경희의 도약 발전은 물론 국내외 대학, 나아가 지속가능한 인류문명을 꿈꾸는 시민과 단체, 공공기관에도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미래리포트는 나, 사회, 문명, 대학, 경희라는 다섯 개 화두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를 상상하는 73개 항목의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나와 세계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나를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게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지금-여기의 나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50년 후 나의 삶을 상상해 보는 설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나를 들여다봅시다.

**1. 2023년 현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행복    ② 공감    ③ 정의    ④ 사랑    ⑤ 인성
- ⑥ 생명    ⑦ 건강    ⑧ 자아실현    ⑨ 자유
- ⑩ 여유    ⑪ 공동체    ⑫ 안전    ⑬ 평등
- ⑭ 경제력    ⑮ 기타 (            )

**2. 50년 후 나에게 가장 소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행복    ② 공감    ③ 정의    ④ 사랑    ⑤ 인성
- ⑥ 생명    ⑦ 건강    ⑧ 자아실현    ⑨ 자유
- ⑩ 여유    ⑪ 공동체    ⑫ 안전    ⑬ 평등
- ⑭ 경제력    ⑮ 기타 (            )

**3. 현재 나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 ① 주변 사람들    ② 책    ③ 미디어    ④ 종교
- ⑤ 여가생활    ⑥ 학교교육    ⑦ 기타 (            )

**4.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문항	1	2	3	4	5	6	7
전반적으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학업에 몰두하는 시간이 늘었다							
원격수업/원격회의를 선호하게 되었다							
미디어 이용시간이 늘었다							
자기계발/여가시간이 늘었다							
가족과 관계가 좋아졌다							
친구/선호배와 관계가 좋아졌다							
새로운 사람/공동체와 관계를 확장했다							
인터넷 쇼핑/배달음식 주문이 늘었다							
건강/위생 관련 지출이 늘었다							
무엇이든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팬데믹 이전보다 더 행복했다							
팬데믹 이전보다 더 우울했다							
팬데믹을 계기로 나의 미래가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 믿었다							

**5. 50년 후 나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① 경제력    ② 인간관계    ③ 전문 지식    ④ 건강
- ⑤ 기타 (            )

**6. 50년 후 현재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가 실현될 확률은 몇 %라고 보는가?**

(            )%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

나의 삶은 타인의 삶과 반드시 연결돼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이 영위됩니다. 두 번째 영역은 나의 삶과 직결된 한국 사회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설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를 질곡으로 몰아넣는 문제를 톺아보고 아울러 50년 뒤 한국 사회를 상상해봅시다.

**7. 앞으로 50년 안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 ① 가능하다    ② 불가능하다

**8.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세계 30위(약 3만 3천 달러)이다. 50년 후 한국의 국민 총생산은 전 세계 몇 위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위

**9. 현재 한국의 인구는 약 5,140만 명이다. 50년 후 한국의 인구는 대략 몇 명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만 명

**10.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 등록자 수는 약 2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이다. 50년 후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은 몇 %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            )%

**11.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1990년 10%에서 2010년 20%, 현재는 29.8%로 증가했다. 50년 후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몇 %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

**12. 2022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146개국 중 59위였다. 50년 후 한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몇 위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위

13. 현재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2시간 정도이다. 50년 후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몇 시간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시간

14. 50년 후 한국의 재택근무 비율은 몇 %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

15.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5세(여자 86.4세, 남자 80.5세)이다. 50년 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몇 세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세

16.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빈부격차    ② 세대갈등    ③ 지역갈등
- ④ 남북 갈등    ⑤ 종교 갈등    ⑥ 인종 갈등
- ⑦ 고령화    ⑧ 출산율 저하    ⑨ 에너지 자원 부족
- ⑩ 환경문제    ⑪ 식량 부족    ⑫ 핵 문제
- ⑬ 민주주의 위기    ⑭ 젠더 갈등    ⑮ 이념 갈등
- ⑯ 기타 ( )

17. 50년 후 한국 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예상하는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빈부격차    ② 세대갈등    ③ 지역갈등
- ④ 남북 갈등    ⑤ 종교 갈등    ⑥ 인종 갈등
- ⑦ 고령화    ⑧ 출산율 저하    ⑨ 에너지 자원 부족
- ⑩ 환경문제    ⑪ 식량 부족    ⑫ 핵 문제
- ⑬ 민주주의 위기    ⑭ 젠더 갈등    ⑮ 이념 갈등
- ⑯ 기타 ( )

18.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느낀 우리 사회의 강점이 자 자랑이 있다면?

( )

19.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느낀 우리 사회의 약점이 자 부족한 점이 있다면?

( )

### 인류의 현재와 미래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우리는 나의 삶의 방식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인류사회가 직면한 지구적 난제를 확인하는 일은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자본주의 문명과 국가의 미래,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한 핵심가치, 미래의 유망 직업, 나아가 미래 문명의 양상에 대해서도 상상합니다.

20. 현재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인가?

- ① 기후 위기    ② 인종갈등    ③ 종교 갈등
- ④ 전쟁과 테러    ⑤ 에너지 고갈    ⑥ 식량부족
- ⑦ 인구급감    ⑧ 질병    ⑨ 국가 간 부의 양극화
- ⑩ 기타 ( )

21. 50년 후 자본주의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 ①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다.
- ② 다른 종류의 문명과 결합해 더욱 발전할 것이다.
- ③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명이 도래할 것이다.
- ④ 기타 ( )

22.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이후, 차세대 산업혁명은 특히 어떤 분야에서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가?

- ① 지식정보(IT) 분야    ② 자원 분야
- ③ 생태-환경 분야
- ④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 산업 분야
- ⑤ 생명공학 분야    ⑥ 우주 개발 분야
- ⑦ 기타 ( )

23. 가까운 미래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가?

- ① 아시아    ② 중동    ③ 유럽    ④ 아프리카
- ⑤ 북미    ⑥ 중남미    ⑦ 기타 ( )

24. 50년 후 인간의 폭력성은 어떠한 것으로 보는가?

- ①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② 대체로 약화될 것이다.
- ③ 현재와 같을 것이다.    ④ 대체로 심해질 것이다.
- ⑤ 매우 심해질 것이다.

25. 앞으로 50년 안에 모든 폭력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가 건설되리라고 보는가?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6. 앞으로 50년 안에 인공지능(AI)이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7.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유 응답)

( )

## 부록

28. 지속가능한 미래의 인류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 ① 다원주의 ② 근검절약 ③ 개인의 자율성  
④ 나눔과 봉사 ⑤ 생명 존중 ⑥ 경제성장  
⑦ 전 지구적 연대 ⑧ 지구를 넘어 우주로 세계관 확장  
⑨ 기타 ( )

29. 50년 후 가장 유망한 직업 분야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의료/건강 분야 ② 예술 분야  
③ 농업, 어업, 임업 분야 ④ 우주공학 분야  
⑤ 정보기술(AI) 분야 ⑥ 종교 분야 ⑦ 교육 분야  
⑧ 경영 기획 분야 ⑨ 스포츠 레저 분야  
⑩ 생명공학 분야 ⑪ 건축 및 토목 분야  
⑫ 도시계획 분야 ⑬ 정신건강 분야  
⑭ 로봇 산업 분야 ⑮ 교통 운송 분야  
⑯ 각급 공무원 ⑰ 음식 식료 분야  
⑱ 사회복지 분야 ⑲ 소방 안전 분야  
⑳ 수의학 분야 ㉑ 게임산업 분야  
㉒ 기타 ( )

30. 50년 후 가장 존경받는 인간형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전문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② 자기 개성을 완성하는 사람  
③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④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사람  
⑤ 탐험가 등 모험심에 불타는 사람  
⑥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  
⑦ 자연과 더불어 자급자족하는 사람  
⑧ 기타 ( )

31. 50년 후 국가의 대표적 형태는 어떠한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 ① 현재와 유사한 형태 유지  
② 초국적 기업이 국가 기능을 압도  
③ 국가 간 지역연합체 탄생  
④ 세계정부 수립으로 단위국가 해체  
⑤ 기타 ( )

32. 50년 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될 언어는?

- ① 영어 ② 스페인어 ③ 아랍어 ④ 중국어  
⑤ 한국어 ⑥ 새로운 세계 공용어  
⑦ 기타 ( )

33. 50년 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 ① 북미 ② 남미 ③ 유럽 ④ 아시아  
⑤ 아프리카 ⑥ 오세아니아 ⑦ 기타 ( )

34. 앞으로 50년 안에 인류 문명이 외계 문명 또는 생명체와 조우할 확률은?

( )%

35. 앞으로 50년 안에 인류가 지구 밖의 행성 또는 위성에 새로운 문명 기지를 건설할 확률은?

( )%

## 대학과 고등교육

대학의 위기는 인간의 위기이자 인류, 문명의 위기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현재 내가 대학교육을 받는 이유에서부터 국내외 대학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고 이에 기반해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대학다운 대학의 요건을 살펴봅니다. 미래의 학생 선발 방식, 재정확보 방안, 미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 등 구체적인 질문도 포함돼 있습니다.

36. 현재 내가 대학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 ① 취업 대비 ② 가치관 형성 ③ 인맥 확대  
④ 학벌 ⑤ 학문탐구 ⑥ 기타 ( )

37. 현재 국내외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진리탐구 ② 인간다움 추구 ③ 전공지식 전수  
④ 취업역량 제고 ⑤ 사회공헌 ⑥ 문명사회 모색  
⑦ 자아성찰 강조 ⑧ 다양성 추구 ⑨ 관계 형성  
⑩ 리더 양성 ⑪ 주체성 함양 ⑫ 사고력 확장  
⑬ 경제적 가치 창출 ⑭ 기타 ( )

38. 현재 국내외 대학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9. 현재 국내외 대학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대학의 어떤 기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진리탐구 ② 인간다움 추구 ③ 전공지식 전수  
④ 취업역량 제고 ⑤ 사회공헌 ⑥ 문명사회 모색  
⑦ 자아성찰 강조 ⑧ 다양성 추구 ⑨ 관계 형성  
⑩ 리더 양성 ⑪ 주체성 함양 ⑫ 사고력 확장  
⑬ 경제적 가치 창출 ⑭ 기타 ( )



부록

53. 경희대학교의 강점은 어떤 부문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교양교육 ② 전공교육 ③ 융복합 분야
- ④ 대학원 교육 ⑤ 국제화 ⑥ 교수의 연구 역량
- ⑦ 사회적 실천 ⑧ 동문의 사회진출 ⑨ 기타 ( )

54. 경희대학교의 약점은 어떤 부문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교양교육 ② 전공교육 ③ 융복합 분야
- ④ 대학원 교육 ⑤ 국제화 ⑥ 교수의 연구 역량
- ⑦ 사회적 실천 ⑧ 동문의 사회진출 ⑨ 기타 ( )

55. 현재 경희대학교의 가장 경쟁력 있는 전공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교양 ② 인문학 ③ 사회과학 ④ 자연과학
- ⑤ 응용과학 ⑥ 공학계열 ⑦ 의학계열 ⑧ 예술
- ⑨ 체육 ⑩ 기타 ( )

56. 50년 후 경희대학교의 가장 경쟁력 있는 전공분야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교양 ② 인문학 ③ 사회과학 ④ 자연과학
- ⑤ 응용과학 ⑥ 공학계열 ⑦ 의학계열 ⑧ 예술
- ⑨ 체육 ⑩ 기타 ( )

57. 현재 경희대학교는 어떤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는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소통 능력 ② 인문학적 소양
- ③ 창의적 문제해결력 ④ 융합 능력
- ⑤ 합리적 사고력 ⑥ 시민적 실천 능력
- ⑦ 미래 예측 능력 ⑧ 리더십 ⑨ 협동심
- ⑩ 기타 ( )

58. 50년 후 경희대학교는 어떤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2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소통 능력 ② 인문학적 소양
- ③ 창의적 문제해결력 ④ 융합 능력
- ⑤ 합리적 사고력 ⑥ 시민적 실천 능력
- ⑦ 미래 예측 능력 ⑧ 리더십 ⑨ 협동심
- ⑩ 기타 ( )

59. 50년 후 경희대학교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진리탐구 ② 인간다움 ③ 전공지식 전수
- ④ 취업역량 ⑤ 사회공헌 ⑥ 문명사회 모색
- ⑦ 자아성찰 ⑧ 다양성 ⑨ 관계형성
- ⑩ 리더 양성 ⑪ 주체성 함양 ⑫ 사고력 확장
- ⑬ 경제적 가치 ⑭ 기타 ( )

60. 경희대학교가 현재 세계시민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1. 경희대학교가 현재 대학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한다고 보는가?

- ①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②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수동적으로 대처한다
- ⑤ 매우 수동적으로 대처한다

62.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희대학교가 가장 잘 대응한 부분은 무엇인가?

- ( )

63.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희대학교가 가장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은 무엇인가?

- ( )

64. 경희대학교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은 무엇인가?

- ① 경영 능력 ② 교육철학 ③ 전문지식
- ④ 미래비전 ⑤ 강한 리더십 ⑥ 소통능력
- ⑦ 공정성 ⑧ 기타 ( )

65. 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갈 경희대학교 총장에게 기대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 ① 윤리적인 인품 ② 탁월한 학문 소양
- ③ 갈등조정 능력 ④ 국제교류 능력
- ⑤ 재정확보 및 경영 ⑥ 산학협력 연결
- ⑦ 학내 자치/자율성 의지 ⑧ 시대정신과 소통
- ⑨ 지역사회 교류협력 ⑩ 사회 아젠다 선도
- ⑪ 구성원과 공감대 형성 ⑫ 미래 예측과 선제 대응
- ⑬ 기타 ( )

66. 50년 후 경희대학교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① 경영 능력 ② 교육철학 ③ 전문지식
- ④ 미래비전 ⑤ 강한 리더십 ⑥ 소통 능력
- ⑦ 공정성 ⑧ 기타 ( )

67. 경희대학교 리더그룹은 다음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항	1	2	3	4	5	6	7
창학정신 계승							
지성을 갖춘 전문인 양성							
인문성을 갖춘 지성인 양성							
사회 정의에 기여							
대학재정 확보 및 운영의 탁월성							
시민사회 아젠다 발굴 및 실천							
경희대 조직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							
경희대 조직 내부 공동체 구현							
창의적 문화 창조에 기여							

68. 전환의 시대, 학교와 구성원의 발전을 위해 경희대학교 리더그룹은 다음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문항	1	2	3	4	5	6	7
창학정신 계승							
지성을 갖춘 전문인 양성							
인문성을 갖춘 지성인 양성							
사회 정의에 기여							
대학재정 확보 및 운영의 탁월성							
시민사회 아젠다 발굴 및 실천							
경희대 조직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							
경희대 조직 내부 공동체 구현							
창의적 문화 창조에 기여							

69. 전환의 시대, 경희대학교 총장에게 이상적인 리더십 롤모델을 제안한다면?

(누구든 자유롭게 구상하고 자유롭게 기재)

( )

\*참고: 2004/2014/2019 Gallup 여론조사,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상위 10위(중복 제외)  
이순신, 세종대왕, 노무현, 박정희, 김구, 정주영, 유관순,  
김대중, 안중근, 반기문, 이견희(2014), 김수환(2014)

70. 50년 후 경희대학교의 세계 대학 순위는 몇 위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위

71. 앞으로 50년 안에 경희대학교 구성원 또는 졸업생이 노벨상을 받는다면 어느 분야가 최초가 되겠는가?

- ① 평화    ② 경제학    ③ 화학    ④ 생리학  
⑤ 문학    ⑥ 물리학

72. 앞으로 50년 안에 경희대학교의 해외 캠퍼스가 세워진다면 어느 지역에 최초로 세워지겠는가?

- ① 북미    ② 남미    ③ 유럽    ④ 아시아  
⑤ 아프리카    ⑥ 오세아니아    ⑦ 기타( )

73. 50년 후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환의 시대,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

##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FGI 문항

### ‘나’의 현재와 미래

#### 1.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 1) 현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 2) 50년 후(교수/직원은 30년) 나에게 가장 소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 2. 50년 후(교수/직원은 30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 1)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는 실현될 것으로 보는가?  
- 실현될 것으로 본다면 그 이유는?  
-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 2) 50년 후(교수/직원은 30년)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

#### 1.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 1) 한국 사회의 위협요인은? 이에 대처하는 한국 사회의 약점은 무엇인가?
- 2) 한국 사회의 기회요인은? 이에 대비하는 한국 사회의 강점은 무엇인가?

#### 2.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한국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 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느낀 우리 사회의 강점이자 자량이 있다면?
-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느낀 우리 사회의 약점이자 부족한 점이 있다면?

#### 3. 50년 후 한국 사회의 국제적 위상은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는가?

- 1) 50년 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행복해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 인류의 현재와 미래

#### 1.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인가?

- 1) 현재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기후, 인종, 종교, 전쟁, 에너지, 식량, 인구, 질병, 양극화 등의 관점에서)
- 2)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인류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문제로 절실히 느낀 점이 있다면?

## 2. 50년 후 인류사회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가?

- 1) 낙관적 또는 비관적이라고 본다면, 그 이유는?
- 2) 인공지능(AI)는 인류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을까?

## 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 1) 낙관적인 미래를 위해 인류가 공동 대응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 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류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

## 대학과 고등교육의 현재와 미래

### 1. 대학의 존재 이유는?

- 1) 내가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 2) 현재 국내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 양성의 핵심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2.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학 교육, 대학 사회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3. 50년 후 미래 대학을 상상한다면?

- 1) 미래 대학은 어떤 모습일까?  
- 캠퍼스, 수업방식(온/오프라인, 플립러닝 등), 교수-학생 관계 등
- 2) 인공지능(챗GPT 등)이 대학교육/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3)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미래 대학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 경희의 현재와 미래

### 1. 현재 경희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 1) 경희대의 강점 혹은 기회요인은 무엇인가?
- 2) 경희대의 약점 혹은 위기요인이 있다면?
- 3) 경희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점,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희대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잘 대처했다고 보는가?

- 1) 경희대가 팬데믹에 잘 대처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 이유는?
- 2) 경희대가 팬데믹에 잘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 이유는?
- 3) 전환의 시기, 경희대는 세계시민사회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고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가?

### 3. 50년 후 경희대는 어떤 모습일까?

- 1) 경희대가 사회와 세대 변화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 2) 50년 후 경희대학교의 위상은 지금과 비교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는가? 그 이유는?

### 4. 현재 경희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 경희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2) 어떤 총장을 원하는가? 구체적 기준 혹은 리더로서의 롤모델을 제시한다면?

\*참고: 2004/2014/2019 Gallup 여론조사,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상위 10위(중복 제외)  
이순신, 세종대왕, 노무현, 박정희, 김구, 정주영, 유관순, 김대중, 안중근, 반기문, 이견희(2014), 김수환(2014)

### 5. 미래 경희대에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십은 어떠한가?

- 1) 향후 경희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2023

발행인 경희대학교  
편집인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발간위원회  
발행일 2023년 8월  
발행처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발간위원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futurereport2023@khu.ac.kr